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北韓調查研究—政治

協商理論에서 본 北韓의 對南戰略分析

研究執筆責任 金 泰 瑞

(略歷) 平壤師範大學 歷史科卒 (1950)
國際問題研究所 研究委員 (1972~)
內外通信主幹 (1974)
國土統一院 非常任 研究委員 (現在)

刊行責任 梁 在 燾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序	3
2. 協商의 一般論	5
가. 協商의 定義	5
나. 協商의 類型	6
다. 協商의 戰術	10
(1) 提案戰術	12
(2) 論爭戰術	15
(3) 合意戰術	17
(4) 잇슈의 操作	22
3. 南北對話의 概況	24
가. 南北對話의 背景	24
나. 南北協商의 進行概況과 合意 및 對立事項	26
4. 協商理論에서 본 南北對話	36
가. 南北協商의 三重選擇構造	36
나. 南北協商의 類型	42
(1) 正常化 類型的 性格	44
(2) 再分配 類型的 性格	45
(3) 革新 協商類型的 性格	47
(4) 附隨效果開發 類型으로서의 性格	49

5. 南北協商 事例에서 본 北韓의 協商戰術.....	55
가. 基本戰術.....	55
나. 會談戰術.....	72
(1) 提案戰術.....	72
(2) 論爭戰術.....	74
(3) 合意戰術.....	76

1. 序

1953 年에 「아더·H·던」大使가 美国代表로 韓国休戰協商을 인수 하러 板門店에 도착했다. 그는 선임자인 「헨리·해리슨」將軍은 「共產主義者들과 어떻게 協商을 하는가?」라는 題目을 쓴 봉투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나중에 혼자 열어 보라고 말했다. 그 봉투속에는 「하지말라 (Don't)」라는 단어 1個만을 적은 종이 한장이 나왔다.

이 逸話는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에 있어 그後 오랫동안 자주 引用되었던 警句이다.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에 있어 懷疑를 表示하고 또 警句를 發한 例는 이 以外에도 許多하다. 前 美国務長官이었던 「애처슨」은 協商이란 共產主義者들에게는 “하나의 戰術手段……즉 危險하고도 高價의 기능성을 가지는 對敵作戰”임을 기억하라고 忠告하였고, 또한 「레오나드·샤피로」는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態度를 “거창하고 成功的인 宣傳活動의 틀”속에서 說明하였다.

主로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을 經驗했던 西方側의 協商家들의 이러한 懷疑는 70 年代의 韓半島에서 새롭게 再生되고 있다. 南北赤十字會談을 비롯해서 最近의 南北調節委會談에 參加하였던 우리側의 代表들의 經驗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비록 共產主義者들과 協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여라도 韓半島의 現 狀況은 協商自體의 論理보다도 協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狀況論理가 훨씬 더 絶迫하다.

筆者는 이러한 基本立場에 서서 北韓의 協商戰術이 어떠한 것인가를 究明코져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協商에 關한 一般論을 정리 소개하고, 나아가서 南北對話를 協商의 一般的 〃틀〃에 비추어 보므로써 協商의 次元에서 南北關係를 整理해 보고자 한다.

2. 協商의 一般論

가. 協商 (Negotiate) 의 定義

人類가 集團社會를 이루고난 後부터 戰爭과 平和의 渦中에서 協商은 비록 그 쓰임새는 달랐지만 여러가지 次元에서 云謂되어 왔다. 이것은 때때로 集團間的 去來나 交渉 (Bargaining) 의 意味로 또는 國家間的 外交 (Diplomacy) 의 手段으로도 取扱되어 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明確한 概念으로 協商의 意味가 定義된 일은 없다. 그러나 現代에 와서 적어도 協商은 紛爭問題와 共同利益을 가진 當事者들간에 相互作用하는 方式 또는 過程으로 理解하고 있는 데는 별 異見이 없다. 現代 協商 理論에 있어서 權位者로 指摘될 수 「프레드·C·이클레」에 依하면 協商은 “利害衝突이 있을 경우 共同利益의 交換이나 實踐에 意思의 一致를 目的으로 分的으로 分明하게 自身の 意思를 開陳하는 過程”으로 定義하고 있다. 여기에서 分明히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協商이 이루어지기 爲해서는 共通되는 利益과 紛爭의 争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卽 共通되는 利益이 없이는 協商을 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紛爭이 없이는 協商의 対象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定義는 協商에 있어 目標과 対象을 分明히 해야 한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協商이 언제 必要하며 또 어떠한 時期에 이것이 有效한가에 關해서는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協商을 意圖하는 當事者들의 目標나 期待를 考慮할 경우 協商의 意味

는 더욱 더 해매성을 內包한다. 이러한 現象이 極端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에서 이다.

「웨브스타」사전은 아마도 無意識的으로 이같은 問題를 다루고 있겠지만 “協商(Negotiate)”이란 概念에 두가지의 定義를 提示하고 있다. 그 하나는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이 더 좋아하는 “去來를 遂行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西方側 協商家들이 意圖하는 “어떤 問題의 解決을 위해 다른 사람과 會談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西方人들이 遂行하고 있는 바로는 協商의 意味를 “去來”에서 그 자신의 “어떤問題의 解決”로 轉換시키려는 努力에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 協商術手의 追求가 적어도 1970年代의 韓半島에서도 例外가 될 수는 없다.

나. 協商의 類型

協商이 하나의 外交的 手段으로 등장한 以後 부터 이것은 그 次元을 國家間의 關係樣相으로 發展되고 있다. 前記한 「이클레」에 依하면 “國家間의 協商을 어떻게 展開할 것인가?”라는 그의 著書에서 協商 當事者가 갖는 目的(aim)이나 目標(objective)에 따라 協商의 類型을 다섯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이것은

- ① 延長協商 (Extension agreement)
- ② 正常化 協商 (Normalization agreement)
- ③ 再分配 協商 (Redistribution agreement)
- ④ 革新協商 (Innovation agreement)

⑤ 合意에 關心없이 效果를 노리는 協商 (Effect not Concerning agreement) 의 다섯가지이다. 이러한 類型的 区分은 協商의 目標과 對象을 보다 明確히 해 준다. 그리고 實際面에서 볼때 協商當事者들은 언제나 優先順位에는 差異가 있다하더라도 以上 題示된 다섯가지 目標들의 몇가지가 結合되어 있는 目標를 協商을 通해서 追求한다. 또 單一의 同一한 協商에서는 協商當事者의 一方이 追求하는 主要目標가 他方의 目標와 相異한 類型이 되는 수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는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에서 보다 뚜렷이 例證되고 있다.

延長協商을 目標로 하는 協商은 正常的인 關係를 持續하려는 即 協商關係者 全部는 아니더라도 一部가 받아들이고 있는 現存協定の 時限을 延長하려는 協商을 말한다. 實例로는 關稅協定の 延長 軍事基地 維持權의 更新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實例는 貿易協定이 失効되면 經濟的 損失이 뒤따르고 軍事基地 協定이 延長되지 않으면 基地 提供國은 財政的 損喪을 보고 使用國은 軍事的으로 不利해 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正常化 協商을 目標로 하는 協商은 停戰 (Ceasefire) 이나 休戰 (Truce) 을 通해 戰鬪를 中止시키거나, 外交關係를 다시 수립하거나, 軍事同盟締結로 一時的인 占領을 終息하고 其他 戰後의 不明確한 關係를 講和條約을 通해 正式化하는 것과 같이 非正常的인 關係를 終結짓거나 默示的으로 이루어진 合意 (Agreement) 를 公式化하는 것으로 稱이된다. 正常化 協商의 경우에 特記할 수 있는

점은 이러한 協定이 締結되지 않을 경우에는 非正常事態가 당분간 계속 有効하다는 것이다. 韓國戰爭 당시의 休戰協商은 正常化를 目標로 한 協商의 一類型으로 看做할 수 있다.

처음 停戰協商이 失敗에 直面했을 때 또는 이 協商이 進行中에도 부분적인 戰爭의 狀態가 계속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러한 特性을 충분히 反映하고 있다. 만일 休戰協商이 失敗하였다면 停戰은 다시 戰鬪를 發生시켰을 것은 明白하다.

再分配를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다른 類型과는 뚜렷한 特徵이 있다. 再分配에서는 相衡하는 利害가 協商의 으뜸가는 主題가 되고 反面 雙方의 共同利益이 言及되지 않거나 交渉이 周邊的인 問題로 觸及된다. 이 協商에서는 基本的으로 攻撃側에 得이 있으면 守備側에 損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協商은 주로 巧謀側이 守備側에 물려 있는 敵을 相對로 不利한 讓步를 強要키 위해 利用되는 協商手法이다.

革新을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前記한 再分配 協商類型과는 달리 協商의 主題가 共同利益이고 相衡하는 利害는 細部問題로 廻避된다. 再分配 協商에서는 攻撃側이 언제나 危脅을 내세우는 反面에 革新 協商은 危脅이 行使되는 일이 거의 없다. 革新協商은 새로운 制度를 創設하거나 새로운 協定을 加緊으로써 協商國間에 새로운 關係나 義務를 設定하는 問題를 주로 取扱한다. 이 協商의 結果로 나타나는 變化는 協商關係國에게 반드시 均等한 利益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關係者들에게 利롭게 作用한다는 점에서 再分配

協商과 좋은 对照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合意에 關係없이 附隨效果를 開發하기 위한 協商은 宣傳 情報의 獲得 또는 相對方의 實力行使를 斷念시키는 結果를 얻는 데 関心を 갖는다. 이것은 協商過程 그 自体는 合意와는 關係없이 重大한 부수 效果를 開發할 수 있다는 데 基底하는 協商類型이며 事實上 現代의 大部分의 協商이 이와 直·間接으로 密接히 연결된다.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에서 目標 合意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西方 協商家들이 會談을 進行시키는 것은 흔히 이 부수 效果에서 어떤 利得을 노린다는 것이 強調되는 경우이며, 이는 西方側과의 協商에 臨하는 共產主義者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클레」에 依하면 이러한 부수효과를 노리는 協商類型的 主要 目標을 대체로 다음 몇가지로 들고 있다.

- ① 相對方과의 接觸을 유지하기 위한 目的
- ② 相對方이 다른 경우에 使用할지도 모르는 모종의 暴力을 斷念시킬 目的
- ③ 相對方에 關한 情報의 入手
- ④ 속임수를 쓰기 위한 目的 即, 예를 들면 日本의 진주만 攻擊에 앞서 「와싱턴」에서 열린 一聯의 會談이 가끔 云 謂된다.
- ⑤ 宣傳의 目的, 即 相對方의 反響을 忖보기 위한 協商面, 威身을 세우려는 面, 그리고 形式的으로 아무데서나 正직성을 보여 주기 위한 面

⑥ 第3쪽에 대한 衝擊을 주기 위한 目的

이같은 附隨效果를 目標로 하는 協商은 오늘날의 狀況에서 볼 때 前記한 다른 類型에 비해 協商에 內在하는 보다 本質的인 要素이다. 이것은 南北對話의 現實에서도 보다 確實하게 立証될 여지가 있다.

以上の 다섯가지의 協商의 類型은 앞으로 提起할 協商의 戰術에서도 部分的으로 云謂된다. 本質的으로 이러한 類型別 考察은 協商當者者들이 目標을 分類한 것에 不過하며 實際로 이러한 目標은 그들의 協商 戰術에 依해서 大部分이 混合되어 나타난다.

다. 協商의 戰術

協商의 結果는 全面決裂로 부터 完全 合意까지를 망라한다. 「이클레」에 의하면 協商의 妥決 過程에서 나타나는 共通되는 理解와 相衝되는 理解를 調節하는 데 있어 協商家들은 다음과 같은 계속적인 三重選擇의 狀況에 處한다는 것이다. 即

- ① 相對方이 妥決하리라고 期待하는 條件에서 合意를 수작하는 경우
- ② 合意없이 協商을 中斷시키고 協商再開의 意思를 表示치 않는 경우
- ③ 追後의 交渉을 통해 有用한 條件을 改善하려고 努力하는 경우이다.

協商자들은 이 세 가지의 選擇條件下에서 協商을 進展시킨다.
要件대 第1案의 目標은 有利한 條件의 選擇으로 集約할 수 있고
두번째의 選擇은 合意의 拋棄를 選擇하는 것으로 指稱할 수 있으
며 계속해서 交渉을 밀고 나가는 第3의 選擇은 協商 테이블에서
뚜렷한 提案으로 계속 맞서가는 것 뿐만 아니라 自己側의 協商
立場을 強化하고 相對方의 立場을 弱화시킬 目的을 계속 追求하는
것이다.

協商자들이 이러한 三重選擇의 狀況에 處하기 까지 또 1案과
3案中 어느 하나를 選擇하여 그 目標을 追求해 나가는 過程에서
수많은 戰術을 駆使한다. 이러한 戰術을 몇가지 범주로 区分하여
說明하므로써 앞으로 南北對話와 관련하여 協商戰術을 연구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은 「이클레」가 整理한 協商의
諸戰術에서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戰術을 分析하는데 必要한 것만을
要約해서 소개코저 한다. 우선 主要內容을 項目別로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提案戰術

- 伸縮的 提案戰術
- 非公開 交渉
- 反復提案戰術

(2) 論爭戰術

- 自己提案을 魅刀있게 하는 論爭 : 善意의 表示, 評價基準
의 變更

- 確固性を 表明하는 論争 : 国内 与論의 利用, 先例의 固守
- 適用規範에 關한 論争

(3) 合意戰術

- 양보 對 양보戰術 (「해글링」戰術)
- 強奪的 要求戰術
- 豫言書 売却戰術
- 原案受諾戰術
- 演繹戰術
- 非論争 戰術

(4) 이슈의 造作

- 끝맺음 戰術
- 一括處理戰術
- 交合處理戰術

(1) 提案戰術

提案이란 協商当事者들이 條件을 맞추어 보는 過程에서 重要한 役割을 한다. 事實 會談席上에서 여러 提案을 對峙시키고 수정하여 窮極的으로 受諾시키는것은 바로 이 自体가 協商을 意味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協商에서 明白한 合意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우선 적어도 明白한 提案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提案은 이것을 통하여 相對方이 協商에서 노리는 期待를 變化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相對方으로 하여금 당신이 一定한 要求

를 固守할 것으로 믿게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당신의 提案은 相對方으로 하여금 당신의 기대하는 최소한의 條件을 수락치 않고는 合意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觀念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당신의 提案은 相對方에 대하여 두가지의 條件을 成就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즉 相對方으로 하여금 당신의 最少期待置에 關한 期待를 變更시켜야 하고 또 相對方의 最後線에 關한 期待를 變更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目的을 達成하는 데 있어 주의할 것은 당신의 提案이 相對方으로 하여금 協商에 대한 興味 잃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提案에 있어 흔히 구사되는 技倆은 다음과 같다.

(가) 伸縮的 提案戰術

相對方이 協商에 對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協商家들은 흔히 自己들의 提案을 伸縮性있는 形態로 만든다. 이러한 伸縮性있는 提案構成의 傾向이 西方側 外交官들 사이에 현저한 것은 一面으로는 相對方이 어떠한 곤란한 立場에 直面하게 될 때 갑작스럽게 會談을 結렬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이며 또 다른 면으로는 伸縮性 있는 提案을 하는 것이 協商의 妥決過程에서 상대방에게 選擇을 便利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러한 戰術이 相對方에게 對話의 結렬을 방지키 위하여 故意로 만들어 졌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된다. 相對方이 이러한 것을 간파할 경우 伸縮的 提案戰術은 相對方에 의해 惡用(逆利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非公開 交渉 (Tacit bargaining moves)

伸縮的 提案戰術인 協商의 結果를 우려하여 相對方에 선택의 여지를 주는 反面에 非公開 交渉은 暗喩간에 自己의 決心을 相對方에게 전달하므로써 自己의 提案을 確實하게 해 주는 戰術이다. 이것은 相對方이 非公開 交渉의 內容이 公開協商의 主題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이 얼마나 伸縮的이고 혹은 確實한 것인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즉 表面的인 硬直하고 명백한 提案만으로는 相對方을 對抗케 만들고 그리고 協商의 結果를 조장하는 反面에 非公開交渉은 상대방이 伸縮性的의 欠如가 故意的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有用性이 크다. 이러한 非公開 交渉의 効果는 1962年 「쿠바」의 危機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많은 「옵서버」들은 「호르시초프」로 하여금 「미사일」을 撤収케 한 것은 그가 美國의 軍事準備 態勢로 부터 「쿠바」기지에 公중暴擧를 暗示하는 情報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危脅은 非公開的이었기 때문에 「호르시초프」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確固한 것인지 혹은 伸縮的인 것인지 아무튼 힛트도 못얻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措置는 「미사일」을 撤収케 하려는 美國의 궁극적 意圖를 確固하게 한 것이다.

(다) 反復提案戰術

協商에 있어 提案의 確固性은 伸縮性和 마찬가지로 심오한 戰術이 될 수 있다. 이것은 協商의 相對方으로 하여금 一方의 提案이 自身의 最少期待置일 뿐 아니라 여하튼 提案이

受諾될 것을 確實하게 期待하고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確固性を 表示하는 方法으로 代表的인 것이 反復提案戰術이다. 이것은 주로 共產主義者들의 戰術로서 흔히 利用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이 이러한 戰術을 驅使하는 理由로는 確固性を 認知시키려는 意圖以外에도 그들의 政府가 새로운 立場에서 訓令示運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2) 論爭戰術

흔히 協商代表들은 각각 조금씩 差異진 戰術로서 論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끈다.

(가) 自己提案을 매력있게 만드는 論爭

協商者들은 단순히 自己의 提案에 關해서만 이야기 하므로서 自己의 提案을 더욱 더 매력있게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方法으로는 協商相手에게 自己의 提案이 友好的 의도에서 發想되었음을 確信시킨다. 이것은 특히 再分配 協商을 目的으로 하는 提案에서 重要하다. 왜냐하면 守勢側은 敵을 補強하는 配分에는 反對할 것이며 友邦을 얻는데는 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協商者들이 自己의 提案이 最善의 動機에서 나온 것이라고 主張할 경우에는 이것이 協商에 참가한다는 代表들에 의해 自己提案이 評價되는데 있어 플러스로 査定될 수 있는 것이다.

一方의 提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또다른 方法으로서는 自己의 善意를 誇示하거나 혹은 好意的인 發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協商 相對方의 評價基準에 影響을 주는 것이다. 要컨대 論爭에 있어 상대방이 評價基準을 改訂할 意향이 있는 경우 相對方의 立場再考를 誘導케 할 수 있다. 一例로 이러한 方法은 이미 提議된 提案과는 다른 새로운 案을 提議하고 이 새로운 案의 타당성을 主張하므로써 相對方의 評價基準에 影響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나) 確固性을 表明하는 論爭

論爭의 또다른 機能으로는 相對方에게 一方의 提案이 보다 確固함과 어떠한 양보도 不可能하게 느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戰術로는 自國內의 輿論을 利用하는 方法이나 節次나 先例를 高집하는 方法 및 自己側은 合意에 급급하지 않다는 지연방법이 있다.

우선 自國內의 輿論을 利用하는 戰術로서는 自國의 輿論이 自身의 立場變更을 反對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內輿論戰術은 政策에 影響을 미치는 國民에 의해 自國內의 立場이 지탱된다는 觀念이 소통될 경우에만 效果가 있다. 節次나 先例를 主張하는 方法은 一方의 양보가 기존 節次에 위배되고 또 새로운 先例를 創設하게 된다는 것을 相對方에게 밝힘으로서 자기의 立場을 변호하는 戰術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合意지연 戰術인데 이것은 자기가 合意 到達에 급급하지 않다는 것을 相對方에게 설득 시키므로써 오히려 그쪽에서 이쪽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價值가 있다고 생각토록 만드는 方法이다.

(다) 適用規範에 關한 論爭

協商家들은 適用規範을 놓고 많은 討論을 한다. 多務的 協商에서 適用規範에 關한 論爭은 多務的 協商에서 보다 한층 더 큰 效果를 갖는다. 이 戰術은 適用規範을 위반하는 一方에 對하여 特定한 規則을 遵守해야만 한다는 것을 主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이러한 適用規範에 위반됨이 없음을 誇示하는 戰術이다. 이러한 適用規範중 協商當事者들이 使用하는 「外交的 語彙」 같은 것이 종종 戰術驅使의 對象이 된다.

(3) 合意戰術

協商 當事者들은 그들의 立場이 合意로 옮겨감에 따라 公開 會談席上에서 提示했던 그들의 提案을 單一한 合意條件에 맞춘다. 이러한 過程에서 當事者들은 相互間에 그들의 期待를 계속 수정하면서 損益測定에 對한 그들의 評價를 變更시키고 또한 그들이 合意를 願하는 한 가능한 條件을 受諾하든가 協商을 계속하든가에 關한 선택문제를 계속해서 저울질 한다. 이러한 合意과정에서 驅使되는 戰術로서 다음 여섯가지로 集約해서 說明할 수 있다.

(가) 讓步 對 讓步戰術 (「해글링」(Ragging) 戰術)

美國政府의 國務長官으로서 「루즈벨트」大統領과 함께 「알타」會談에 參席하였던 「스테터니어스」長官은 소련이 美國과 英國보다 더 많은 讓步를 했다고 主張함으로써 「알타」會談을 변호했다. 그는 모든 國聯國들에 의해 명예롭고 公正한 精神에 의해 妥協이 이루어 질 경우 이것이 適當한 方法이 아닐 수 없다.」는

主張을 내 세웠다. 讓步 對 讓步에 依해 妥協點을 摸索하는 戰術은 協商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戰術이다. 이것은 적어도 「公正」을 主張하고 協商이 公正하게 妥決되어야 한다는 立場이다. 讓步의 方法은 그 形態를 달리하여 「해글링」戰術로서 說明될 수 있다. 이것은 讓步의 方法이 보다 紳士的이고 友好的인 立場에서는 反面에 보다 야박하다고 表現될 수 있는 戰術이다. 「해글링」戰術을 다르게 表現하면 一種의 「에누리 戰術」을 말한다. 이러한 에누리戰術(또는「해글링」)은 「호르시 초프」에 依해 「장사꾼들이나 하는 方法」이라고 비난되었다. 즉 그는 「우리는 우리의 提案을 관철시키기 爲해 야채장수와 같은 方法은 쓰지 않는다. 야채장수는 3倍의 價格에 限界價格을 붙이고 그다음 흥정을 계속하여 이 價格보다 훨씬 싼 價格으로 판다」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해글링」戰術은 共產主義者들의 協商視에서는 쉽게 容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戰術을 充分히 逆利用할 여지가 있음은 오랫동안의 東·西協商 事例에서 立証되어 왔다.

(나) 強奪的 要求戰術 (Extortionary Demand)

協商에서 妥協點을 摸索하는 過程에서 흔히 協商當事者들은 비록 自己側에게는 하등의 利用價值가 없더라도 協商相對方에게는 그들의 利益과 全적으로 相反되는 排他的 提案을 함으로써 보다 有利한 妥協商地를 占領한다. 이때의 目的은 그들의 提案속에 介在된 要求條件을 獲得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全적으로 相對方에게 同提案을 撤回하는 代價로 讓步를 얻어 내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強奪的 要求戰術에 對한 보다 效果的인 對策으로는 相對方 側에 새로운 強奪的 要求를 提起하는 것이라고 「이클레」는 說明하고 있다.

(나) 豫言書 売却戰術

妥協案이 協商 當事者들이 合意의 條件에 一致하는 唯一한 方法은 아니다. 協商의 어느 一方이 讓步를 하기는 커녕 자기 의 提案에 새로운 要求를 첨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이에 反해 協商의 다른 一方이 合意에 到達하기를 絶對히 바란다면 讓步를 계속해야만 할 것이며 처음 一方에 의해서 提示된 해당초의 條件보다도 덜 바람직한 條件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豫言書 売却戰術」이 바로 이러한 要求를 倍加시켜 나가는 戰術이다. 이 戰術은 古代神話속에서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있다. 「큐우메」의 豫言의 女神 「시빌」은 「로마」 最後의 傳說의 君主인 「타-킨」大帝에게 아홉권의 豫言書を 팔려고 했다. (「로마」의 역대 帝王들은 豫言을 根柢로 政治를 하였다). 「히-킨」大帝는 그 價格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價格을 내릴 것을 要求했다. 그러자 「시빌」은 아홉卷中 세卷의 豫言書を 태워버리 나머지 여섯卷의 豫言書を 처음 要求한 價格에 팔것을 提議했다. 「타-킨」이 다시 價格引下를 主張하자 「시빌」은 세卷을 마저 태워버리고 나머지 세卷을 처음 價格에 팔것을 또다시 提議했다. 「타-킨」은 더 以上 價格引下를 要求하다간 세卷의 豫言書마저 태워버릴 것을 염려하여 나머지 세卷을 처음 아홉卷의 價格으로

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戰術은 더 이상의 흥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서 相對方으로 하여금 굴복케 한다. 相對方으로서는 더 좋은 機畧을 노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재빨리 提議된 協商條件을 수락하게 된다. 이런 戰術은 協商決裂의 展望이 相對方에게 점차 不利해질때 특별히 效果가 있으며 제일 온당한 最初의 提案으로 相對方을 유도하는 이점이 있다. 또 다른 狀況에서 豫言呑却 戰術은 要求條件을 增加시킴으로서 결국 相對方이 協商을 拒否하게 하는 利點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단 相對方이 協商을 進행한다면 점진적 要求條件의 增加는 마침내 최후의 不利點까지 물고갈 수 있는 戰術이다.

(타) 原案의 受諾

이것은 合意妥決過程에서 相對方이 提議한 原案을 당장 受諾하므로써 여러가지 條件을 간단히 解決할 수 있는 戰術이다. 이와같은 것은 協商의 一方이 자기의 要求條件을 改善할 意思가 없고, 둘째로 協商 相對方이 條件을 부가시킬 우려가 있거나, 셋째로 相對方이 原案을 改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確信이 있을때 可能하다. 歷史的 事例에서 볼때 些少한 問題보다 重要的 「이슈」들이 흔히 原案을 그대로 受諾하므로써 解決되어 왔다.

(마) 演繹戰術

協商에서 合意點에 到達하는데 두 段階의 過程이 使用되는 수가 많다. 우선 妥協의 方法을 通하여 広範한 目標와 原則의 윤곽에 關하여 合意에 到達한다. 그 다음은 相互間에 受諾할 수

있는 思惟方法을 適用하므로써 이 合意된 論點으로 부터 具體적인 合意點에 到達한다. 이러한 方法의 適用으로 나타난 結果가 大體로 事前에 決定되기 때문에 協商代表들은 일단 論點에 合意하면 그 다음 具體的 事項은 論點에서의 演繹과정에서 決定된다. 南北 共同聲明에 關한 南北間의 合意는 앞으로의 具體的 合意를 前提로 한 論點에 해당하는 한 形態로 볼 수 있다.

(바) 非論爭 戰術

協商者들은 協商의 妥決에 있어서 누구나 끈질긴 紛爭의 爭點을 새로운 解決策 또는 새로운 公式의 創案을 通하여 克服해야 한다고 強調한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論爭의 對象이 되지 못하는 爭點을 가지고 協商을 進行할 수도 있다. 이러한 機略은 우리의 日常生活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두사람이 조결 수 없는 財産덩이를 놓고 配分하는 방식에 意見의 一致를 보려고 努力하는 경우에 이 두사람의 協商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나 이러한 努力을 통해서 그들은 그 財産의 一部가 自己의 것이라는 確信을 相互 認定하게 된다. 이러한 戰術은 처음부터 解決策이 없는 爭點을 통하여 다른 부수效果를 開發할 目的으로 使用된다. 이런 事例로는 새로운 權利나 정통성의 分配를 必要로 하는 一方이 再分配를 目標로 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어 왔다.

(4) 「이슈」의 造作

協商에 있어 「이슈」를 公式化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상당한 自由를 갖은 것이 보통이다. 協商代表들은 「이슈」를 解決하는 것 以上으로 「이슈」를 造作하는데 努力을 바치는 수도 있다. 「이슈」의 公式化는 協商에서의 양보의 限界를 設定하고 压力, 威脅 및 경고가 使用될 範圍를 限定한다. 그리고 「이슈」의 造作過程을 원만히 處理해 나가는 協商者는 그 協商에서의 궁극적 目標을 얻어낼 수 있는 者이기도 하다.

(가) 끝맺음: 戰術 (Last Minute demand)

이것은 協商의 어느 一方이 다른 모든 問題가 妥決되고 合意書가 調印될 段階에 왔을때 새로운 提案을 追加하고 이를 妥決하기를 要求하는 戰術이다. 이때 만일 他方이 到達된 合意를 保存締結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면 이 끝맺음 要求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끝맺음 戰術은 會談의 끝머리에 자기의 要求를 提示하므로써 利益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戰術은 大體로 多務的 協商에서 주로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이 戰術驅使에서 留意할 점은 이때 提起하는 要求가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이거나 너무 重大한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協商者들로 부터 非難을 면치 못한다는 점이다.

(나) 一括處理 (Package)

一括處理의 方法은 흔히 協商 一方의 立場을 說得刀있게 協商 相對方에게 傳達하는 戰術로 利用되어 왔다. 이것은 協商에서

妥決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目標에 關한 提案을 同時에 提起하는 方法이다. 一括處理를 提案하는 時期은 協商의 相對方이 자기편에서 代價로 어떤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자기가 特別히 關心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有利하게 妥決하기 힘들 것이라 憂慮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쪽에서 어떤 方式으로건 처음 「이슈」에 대해 양보를 기꺼이 할 경우라면 이 쪽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争點을 양보에 결부시켜 提起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一括處理의 方法은 다음에 言及할 交合處理方法과 區別되는 戰術이다.

(4) 交合處理 (Tie-ins)

交合處理方法은 協商의 一方이 協商의 相對方에게는 直接的으로 關係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争點을 提案하고 이 争點과 同時에 妥決할 것을 條件으로 한 主要争點의 解決策의 受諾을 提議하는 것이다. 이 戰術 역시 多務的 協商에서 驅使될 수 있는 戰術이다. 이러한 歷史的 事例로는 1963年 여름 部分核実験禁止와 不可侵條約을 묶은 交合案이 「호르시츠포」에 依해서 提起된 일이 있다.

이러한 戰術以外에도 打開하기 힘든 争點을 회피하는 代身 争點을 分離시키는 戰術을 驅使하므로써 當事者들의 讓步를 한층 더 容易하게 할 수도 있다.

3 . 南 北 協 商 的 概 況

가 . 南 北 對 話 的 背 景

70年代에 들어서서 南北間에는 지난 4半世紀의 異質分断体制을 單一化 하려는 努力이 試圖되고 있다는 몇가지의 例證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例證은 韓半島 内外의 主·客觀的 狀況에서 集約 되는 与件은 南北對話を 協商理論에서 取扱하는 類型的 分類속에 一般化시킬 수 없는 特殊性을 갖게 하고 있다. 南北協商의 特殊性을 論하기 前에 이것이 갖는 主要 背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南 北 關 係 面

分断 27年間 南北韓은 異質的인 理念과 政治体制의 維持로 因하여 不信 및 敵對關係가 深化되어 왔음은 周知하는바 다음 세가지의 側面에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韓半島外的인 狀況으로서 極東政治의 構造變更에 基因하는 韓半島의 冷戰構造로부터의 解放趨勢이고, 둘째로는 強國政治의 力学構造에 緣由하는 國內政治의 不可避한 追從이며 셋째로는 以上の 對内外 連繫構造와는 별도로 韓半島內的 同一言語, 歷史, 民族的 單一感에서 出發하는 統一意志의 發露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對·内外的인 바이다. 同族相殘의 6.25 戰爭 經驗은 同族間的 不信과 敵對感情을 体制나 政府的 次元에서 個人的인 關係까지 擴大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여우

기 6.25 戰爭은 雙方의 軍事的인 軍備競爭을 加熱化 시키고, 지난 20 여년 동안 韓半島에 戰爭一步前의 軍事的 對決樣相을 露呈케 하였다.

EC121 事件, 東海에서의 「푸에블로」 号 남치事件, 1月21 日의 武裝케릴라의 侵透事件 등을 비롯한 一聯의 挑發事件은 南北間에 놓여 있는 不信과 敵對感의 深化를 促進하는 要因이 되어 왔다는 것도 事實이다.

이러한 狀況的 与件은 南北間의 武力對決의 危險을 增大시키므로서 이를 脱避하기 위하여는 南北間의 對話의 方法이 不可避한 代案으로서 提起되며 이것은 곧 對話構造만이 南北의 緊張을 해소하고 民族念願인 統一로 向하는 選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國際情勢面

理念的 對立을 本質로 하고 있었던 戰後의 國際政治 秩序는 韓半島의 內部構造의 分斷을 招來하였음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美·蘇의 兩極化 體制가 戰後의 強大国政治構造였음은 南北間에도 自由 共產의 理念的 要因을 單一民族의 次元을 압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最近 數年間 國際政治 秩序는 美·蘇의 兩極體制的 構造에서 多極的 體制構造로 變移하여 왔다. 이것은 韓半島 周邊의 列強들이 戰後 冷戰體制를 脱皮하게 되었다. 私解와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平和共存指向의 새로운 勢力均衡을 摸索하는 方向으로 轉換케 하고 있다. 따라서 國際的 緊張緩和 潮流속에서 극동을 위요 하고 있는 諸國은 政治理念的 關係보다 實利追求를 本質로 하

게 되고 南北韓關係 역시 이러한 實利中心이 새로운 秩序의 追從을 強要받고 있는 狀況에 処해 있다고 할 수 있다.

理念對立的 秩序의 變化는 南北이 緊張狀態의 持續을 本質적으로 拒否한다. 만약 南北이 緊張이 持續된다고 할 경우 이는 곧 戰爭誘發의 危險을 內含하게 되므로 적어도 韓半島의 緊張狀況은 새로운 秩序에 順應하는 方向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論議가 선다. 따라서 平和指向的인 새로운 國際秩序 變化에 適應하고 또 南北間의 葛藤과 對立을 自主적으로 解決하기 위한 對話通路 開設의 必要性이 提起된다고 하겠다.

(3) 對內的 側面

6.25의 쓰라린 經驗은 各己 雙方體制에 對한 強한 不信과 憎惡을 갖게 한 反面에 수많은 사람들이 離散家族이라는 用語로 지칭되는 苦痛과 슬픔속에 再會의 慾望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同族相殘의 悲劇이 再演되는 것을 不願하는 以外の 흩어진 家族은 再會를 希望하고 이는 南北間의 平和的인 方法만이 可能하다고 믿고 있다. 分斷으로 因한 民族的 苦痛解消 및 統一된 民族繁榮國家를 希求한다함은 離散家族의 苦痛 解消 및 國民의 平和統一 念願 實現을 위한 現實的 代案으로서 南北對話가 不可避함을 말하는 것이다.

나. 南北協商의 進行概況과 合意 및 對立事項

以上の 背景속에 進展되었던 南北間의 對話는 그 背景 以上으로

그 進行概況과 合意 및 對立事項을 살펴 봄으로서 南北對話의 理論的 性格을 把握하기가 容易해 진다. 또한 이것은 南北協商의 現實的 狀況을 中心으로 해서 적어도 앞으로 進行되거나 되어야 할 協商의 類型을 理論的 次元에서 考察하는 데 있어 主要한 根拠가 될 수 있음은 勿論이다.

(1) 南北會談 進行概說

70.8.15 平和統一 構想이 宣言된 以後로 이듬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의 崔斗善 總裁는 北韓側 赤十字 中央委員會에 「離散 家族찾기運動」을 提議하였다. 이 提議는 同年 8月14日 北韓側 赤十字 中央委員會 孫成弼 委員長이 我側의 提議를 受諾할 것을 發表하므로써 南北間에 分斷以後 첫 平和的인 會談이 開始되었다.

南北間에 離散家族을 찾아주자는 會談 7次 本會談 以後로 南北 赤十字 會談은 교착狀態에 빠지고 있다. 이는 南北會談이 純粹하게 人道的 次元에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소위 金大中 事件이라는 政治的 問題를 契機로 한 8.28 北韓 聲明이나 最近 韓國內의 學園事態等으로 因해 造成된 現 分위기가 會談의 場所的 制約變動 내지는 會談開催에 있어서 까지도 制約的인 要素로 무각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 進行概況을 다음과 같이 要約 說明해 볼 수 있다.

赤十字 会談 運行概況

区 分	派遣員接触	予備会談	実務会談 (非公開)	本会談
開催回数	5次	25次	13次	7次
開催場所	板門店	板門店	板門店	서울·平壤

이같은 赤十字会談과 次元을 달리하는 南北調節委 会談에 關해 서도 보기로 하자, 1972.5.2~6 朴大統領의 英斷下에 李厚洛中 央情報部長이 극비리에 平壤을 방문하였고, 이에 北韓側은 1972. 5.29~6.1 金英柱의 代理로 當時 第2副首相 朴成哲을 秘密裡 에 서울에 派遣하였다. 이러한 往來의 結果로 1972.7.4 서울 과 平壤에서 南北共同聲明을 同時에 發表하고 南北調節委員會 構 成 運營을 合意하였다.

이로서 비롯된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進行되어 왔다.

南北調節委員會 進行概況

区 分	共同委員長會議	調節委員會會議	幹事會議
開催回数	3次	3次	3次
開催場所	板門店 (1) 서울 (1) 平壤 (1)	서울 (2) 平壤 (1)	板門店

(2) 合意事項과 對立事項

以上에서 說明한 南北間의 赤十字會談과 調節委會談에서 이루어진 合意事項과 對立事項을 檢討하고자 한다.

赤十字 會談은 節次問題, 議題問題, 共同事務所 設置問題에 南北이 合意를 본反面에 具體적인 議題의 推進 또는 이를 前提한 雙方의 條件的 制約이 對立點으로 推察되었다. 反面에 調節委會談의 경우 歷史적인 7.4 共同聲明이 이의 소산이고 會議進行中에 合意를 가져온 것도 있다. 反面에 本質적인 問題解決에 있어서는 赤十字會談의 경우에서 처럼 條件的 制約이 推察되었다. 北韓이 金大中 事件을 빙자한다든지 會談代表者 교체를 條件으로 내세운다든지 그 以外에 諸般 要求條件을 倍加시키는 등의 事實들은 南北間의 會談을 단순한 國家間의 協商이나 團體間의 協商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第4章에서 보다 具體적으로 取扱토록하고 여기서는 赤十字, 調節委 會談의 主要 合意·對立事項을 부분별로 일단 파악해 두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가) 赤十字會談

<合意事項>

① 節次問題

- 會談場所에 對한 合意 (서울·平壤)
- 會談公開如否에 對한 合意 (公開 또는 非公開)
- 代表團構成 (代表 7 名, 諮問 7 名, 隨行員 20 名, 內信報道陣 20 名)

- 直通電話 架設 (中央機構間)

② 議題問題 (5 個項 合意)

- 離散家族 및 親戚의 住所 및 生死確認
- 書信去來
- 訪問 및 相逢 實現
- 再結合
- 其他 人道的 問題

③ 板門店 共共事務所 設置

<對立事項>

① 韓國은 議題, 項의 具體的 妥結策으로서

- 事業의 節次
- 書式의 制定
- 事業機構設置
- 事業의 開始時期 問題를 提起하고 이를 위하여 國際尋人事業原則과 節次를 尊重할 것을 提案하고 있는 反面에,

② 北韓은 議題와 關係없이 先行條件을 提案하였다.

- 法律的, 會社的 環境改善 要求
- 反共法, 國家保安法 廢止
- 反共團體 解体
- 赤十字 了解 解說要員의 相對方 地域派遣

(7) 調節委 會談

<合意事項>

① 7.4 共同声明

- 祖国統一 三原則 合意 (平和, 自主, 民族大團結)
- 緊張緩和, 信賴 雰囲気 造成 (中傷誹謗中止, 武力挑発 및 軍事의 衝突防止)
- 多方面的 交流實施
- 赤十字會談 支援
- 서울, 平壤間 常設直通電話 架設
- 南北調節委 構成, 運營

② 會議中 原則 合意

- 1972.11 ~ 1 / 을 期에 相互非難放送 및 叫聲撤布中止
- 幹事會議 構成
- 共同事務局 設置 및 調節委 運營細則 作成
- 各 分科委는 事業의 進捗에 따라 設置

<對立事項>

① 韓國은 上記 原則合意에 對한 具體的 實現方案으로서

- 調節委 運營細則의 早速한 作成
- 幹事會議의 早速한 構成
- 板門店에 南北調節委 共同事務局 建立
- 南北社會의 相互完全開放을 爲한 交流의 協商方案의 具體的 提示 (15 個項目의 經濟, 社會, 文化交流

- 經濟。文化分科委 優先設置 等を 主張하는 反面에
- (2) 北韓은 合意事項과 關係性이 先行解決 條件으로서
 - 軍備競争中止
 - 軍縮
 - 外軍撤収
 - 武器搬入 中止
 - 平和協定 締結等 軍事 5 個項을 主張하고
 - 各界各層의 人士들의 政治協商 開催
 - 5 個分科 委員會 一括設置
 等を 主張하고 있다.

여기서 北韓의 協商 戰術을 檢討하기에 앞서 赤十字會談과 調節委 會談에서 提起된 對立事項中 北韓의 先行條件 主張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첫째 北韓이 法律的。社會的。條件 및 環境改善을 要求하고 있다. 이는 具體적으로 南韓內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 撤廢, 反共團體의 解体, 反共政策의 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分斷以後 大韓民國이 보지해온 反共路線을 포기하고 또 南北이 지금까지 取해온 動亂體制를 韓國 一方만이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主張하는 北韓側의 底意는 韓國內 共產主義 活動의 合法化를 遙한 所謂 「共產革命努力의 活動 領域 確保」라는 것과 또한 韓國의 安保 및 反共體制 解弛 및 韓國國民의 反共意識을

弛緩시키려는 心理戰術의 一環으로 把握할 수 있다. 이러한 主張에 對하여 韓國으로서는 韓國 法秩序에 對한 內政干渉일뿐 아니라 赤十字 基本精神에 위배되고 또 赤十字事業과는 別個의 問題이므로 해서 正當히 反對의 立場을 取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7.4 南北共同聲明精神에도 위배됨은 勿論이다. 共同聲明 第1項 第3條의 「思想과 理念, 制度를 초월해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자는 精神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의 環境改善要求는 지금껏 南北間의 對話進展과는 無關할 뿐 아니라 對話의 他方에 對한 認識마저 否認한 兇事로 把握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了解解說要員의 相對方 地域 派遣을 主張하고 있다. 그 內容인 卽 洞, 里單位에 1名씩 了解要員을 派遣하여 市, 郡單位로 活動케 하고 了解解說要員에 對한 言論, 出版, 集合, 通行에 自由活動을 保障할 것과 人身과 휴대품에 對한 不可侵性을 認定하라는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主張의 底意는 韓國內에서 政治的인 群衆 事業展開 및 共産黨의 合法的 組織化를 實現하자는 데 있다. 北韓側의 了解解說要員의 南韓派遣數는 그들의 主張대로라면 35,997 名에 達한다. 이러한 主張 역시 韓國內의 法秩序에 對한 公公然한 要求일 뿐 아니라 赤十字 尋人事業의 根本的 精神에 위배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셋째로 調節委 會談에서 北韓의 軍事 5個項目에 對한 先決解決 主張이다. 이미 說明한 대로 軍備縮小, 兵力減縮, 軍裝備導入 中止, 美軍撤収, 平和協定 締結의 5個項 主張은 北韓이 韓半島 南쪽에

힘의 真空狀態를 招來케 하므로써 그들이 優越한 힘의 背景下에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條件을 造成해 보자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休戰協定の 無効化 및 駐韓美軍撤収를 促求하고 平和協定締結에 依한 國際法上 韓國과 同等한 法的 地位를 獲得코저 하는 데 그 底意가 있다. 이러한 主張은 韓國의 安保體制 및 安保能力의 完全 解弛 및 말살을 要求하는 것인 反面에 人民民主主義 革命遂行의 條件造成 聯邦制 實施를 爲한 反美, 反政府 統一戰線 構築試圖를 묵인해 달라는 것으로 協商이나 對話가 一方이 他方の 支配를 容易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武力이 아닌 平和的 對話가 雙方이 平衡의 立場에서 이루어지는 交渉으로 把握되는 國家間의 協商과는 전혀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네째로 各界各層 人士들의 政治 協商開催主張이다. 이는 南과 北의 各界各層의 人民들과, 各 政黨, 社會團體들과 統一問題의 廣範한 協議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南北調節委 밖의 새로운 統一戰線構築을 試圖하고 南北間의 政治合作 企圖 및 多務的 接觸으로 對南革命의 條件을 造成하자는 底意를 갖고 있는 反面에 一方 北韓住民들의 統制를 위한 政治求心點을 造作키 爲한 底意로 分析할 수 있다.

이러한 協商은 現段階 南北協商의 中軸的 役割을 遂行해야 할 南北調節委의 機能을 無力化 시키는 것이며 나아가서 韓國政府와 國民의 離間助長, 韓國의 國論分裂 및 反政府 統一戰線構築을 劃策하는 것으로 적어도 現段階의 課題와 全혀 無關한 強奪的 主張이다.

다섯째로 調節委 5個分科 一括設置 主張이다. 이는 軍事問題를 優先하고 政治, 軍事, 經濟, 文化, 外交等의 5個分科를 設置하자는 主張이다. 이러한 北韓主張은 實現 不可能한 提議를 通하여 南北 對話의 主導權을 掌握하므로써 南北間의 理念樹立을 外部로 表面化 시켜 그들의 宣傳舞台로 南北調節委를 活用하려는 底意가 介在되어 있다. 同時에 이는 南北의 問題를 政治的 性格으로 方向을 轉換 시키므로써 國際社會에 北韓의 位置를 公고히 하는 反面, 北韓 內部에 金日成 偶像政策을 公고히 하려는데 있다.

根本적으로 5個分科委 同時 設置主張은 지금껏 진척되어 온 南北對話의 탕을 허무는 結果가 될 것이다. 이는 현단계 南北의 問題가 統一政府國家를 수립하기전에 民族間의 相互信賴의 基盤과 緊張緩和의 분위기 造成이 優先的이어야 한다는 主. 客觀的 論理에서 볼때 아무런 說得力을 가질 수 없다. 南北間에 介在된 基本的 對立要因과 摩擦要因이 軍事, 政治問題에 潛在해 있다는 歷史的 諸般 事實을 勘案할 때 이는 수긍키 어렵다. 또한 南北間의 기왕의 調節委 構成 및 合意文書에서 지적한 대로 「各分科委員會는 事實의 進陟에 따라 設置해야 한다」는 內容과는 엉뚱한 主張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協商理論에서 본 南北對話

가. 南北 協商의 三重選擇 構造

(1) 三重選擇에 關한 一般論

一般的으로 協商妥結過程에서 選擇되는 代案으로서는 첫째, 相對方이 妥結하리라고 期待하는 條件에서 合意를 수락하는 경우, 둘째, 合意없이 協商을 中斷시키고 協商再開 意思를 表示치 않는 경우, 셋째 追後의 交渉를 通해 有利한 條件을 확보하려고 努力하는 경우의 세가지가 있다.

協商家들은 누구나 이 三重選擇의 狀況에 處하게 된다. 즉 이 三重選擇은 비록 外見上으로는 協商家들이 어떤 特定時期에 直面할지 모르나 協商過程에서 암암리에 取하고 있는 態度이다.

첫째의 경우를 選擇의 代案으로 삼는 경우는 有利한 條件이 問題된다. 따라서 이것은 相對方에 의해 提案되거나 相對方이 즉각 수락할 것으로 보이는 條件에서 合意하는 것을 意味한다.

一般的으로 多務的 協商이 아닌 雙務協商構造에서는 이 代案이 가장 容易하고 一般的인 代案이 된다. 雙務會談에서는 보다 간단히 有用한 條件을 提示할 수 있다. 만일 어떤 政府가 條約形式으로 落着될 수 있는 事項에 대해 協商할 경우 어떤 特定한 時期에도 利用할 수 있는 條件은 이미 合意된 條項, 相對方이 提議한 條項에 아직은 檢討되지 않았지만 相對方이 應할 것으로

期待되는 条項이 부가됨으로서 이루어 진다. 通常적으로 볼 때 有用한 條件은 協商의 初期에는 들어나지 않는다. 이 代案은 궁극적으로 相對方이 妥結할 用意在 있는 條件에서 一方의 受諾에 依하여 合意가 이루어 지는 方法이다.

둘째의 경우는 合意의 決裂을 選擇하는 것으로 指稱할 수 있다. 이것은 協商을 中斷하고 他方과 明示的인 새로운 協定을 締結할 努力마저 포기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 選擇은 비록 相對方의 要求條件을 緩和시킬 意圖에서 協商을 中斷시키는 戰術과는 區別되지만 아직도 政府가 一方的 措置를 使用하거나 對立狀況을 改善시킬 非公開交渉을 벌일 餘地를 남기고 있다. 協商을 中斷하는 政府는 相對方에 壓力을 加하여 보다 유리한 條件下에서 協商이 展開되기를 希望하는 가운데 다른 手段에 依하여 交渉을 계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合意포기를 選擇한 당사자는 合意到達을 위한 모든 努力을 中斷한다. 그러나 이것도 항상 最終的인 것이 아니고 相對方이 새로운 誘因을 提供하거나, 새로운 壓力을 加하므로써 協商을 再出發할 수도 있다.

세째의 경우를 代案으로 選擇하는 데는 보조조치가 必須적으로 수반된다. 이것은 交渉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되 自己側의 立場을 強化하고 相對方의 立場을 弱화시킬 目的으로 政府가 取하는 其他의 措置까지 망라된다.

계속해서 交渉을 推進하는 選擇은 前記한 두 代案의 경우를 最終적으로 選擇하는 것을 연장시킨다는 것 以上の 意味를 가진다.

즉 이것은 有用한 條件을 改善시키기 위해 附加的 努力을 進行시키는 決定이다. 만일 계속적인 交渉이 이러한 努力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受動的 態度로 協商을 中斷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즉 이것은 단지 새로운 外生的 環境 또는 事態發展이 相對方의 心境에 變化를 일으킬 것이라는 希望에서 有用한 條件과 합의 포기 間의 선택을 繼續 연장시키는 待期期間의 措置로 把握할 수 있다.

만일 特定한 協商一方이 選擇하는 代案은 合意포기와 合意選擇의 結果에서 推算되는 損益을 比較에 擧げ할 것이다. 그다음 계속적인 交渉의 危險과 代價를 認定하면서 계속적인 交渉이 이들 처음 두개의 代案選擇에 長點을 더 補強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檢討하게 될 것이다.

(2) 南北協商 構造

南北間의 協商은 協商自體의 論理以外 外的인 要因이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南北의 協商의 妥結方向을 決定하는 戰略的인 變數들 南北協商 當事者보다 韓半島 주변의 強國들이라는 點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對話外廓 構造에 關해서가 아닌 南北協商의 内部的 構造에 關해서 把握토록 한다.

南北韓의 協商構造는 적어도 위에서 提示한 三重選擇의 狀況으로 說明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南·北 어느 一方도 이러한 三重選擇 狀況中 어느 代案을 選擇하고 이것을 處理해 나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난 2年間의 赤十字·調節委 두 會談의 過程속에서

把握할때 韓國의 경우는 ①의 代案을 北韓의 경우에는 ②, ③의 代案을 中心으로 協商을 展開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韓國의 경우는 相互의 合意可能點을 發見하여 段階的인 方法에 依한 協商을 進展시키자는 立場이다. 이는 韓國이 基本 立場으로 하는 3段階接近 方法 人道的→非政治的→政治的 에서 明白히 나타난다. 여기서 指摘해 둘 것은 韓國의 對話立場이 여 하한 경우에건간에 韓半島 緊張해소의 手段으로서 선택된 對話構造를 本質적으로 目標實現의 手段으로서가 아니라 對話自体를 目的時 된 감이 없지 않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南北의 對話의 必要性, 協商의 必要性이 對話 그 自体에서까지 하나의 代案-合意-만을 選擇케 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勿論 이것은 南北對話가 最善의 代案이라는 基本的 立場이라는 側面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對話의 方法面에서 再考의 必要가 있음을 指摘하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의 協商態度가 正反對의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明白하다. 北韓의 경우 그들의 지난 協商過程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對話나 協商이 그들 目標達成의 1個 手段으로 選擇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協商의 三重選擇의 狀況을 自由롭게 活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의 合意의 方法과 決裂, 中斷, 對話의 持統的 交渉의 方法이 一貫性이 없는 自由분방한 態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協商의 一般的 慣例와는 關係없이 그들 目標에 有利한 경우라면 어떤 手段이라도 - 비 이러한 手段間에 矛盾이 있던 없던, 對話·協商의 一貫性이 있

없던 間에 不問하고 - 使用하여 왔다는 것이다.

3章의 南北協商的 合意事項과 對立事項에서 본대로 7.4 共同聲明의 原則合意와 全히 無關한 主張을 北韓은 反復하고 있을 뿐 아니라 協商과는 無關한 條件을 理由로 中斷 내지 協商決裂의 威脅을 加하므로써 協商論理를 오로지 그들 目標대로 惡用하고 있는 것이다. 同時에 그들은 韓國이 선택하고 있는 對話不可避性을 正面에서 攻擊하는 手法을 利用하므로 對話, 協商的 主導權을 恒時 確保하는 反面에 이에 따른 그들 目標-南韓內의 人民間, 人民政府間의 矛盾 極大化-達成에 있어 부수적 效果를 開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側의 엉뚱한 主張이나 協商決裂 威脅의 不當性을 暴露하기에 앞서 우리의 對北協商姿勢面에서 현재의 立場을 補強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補強의 方法은 北韓으로 하여금 對話의 不可避性을 인식케 하는 方法-예를 들면 南北合意에 대한 주변 強國들의 對北壓力強化 또는 北韓이 目標를 근본적으로 封鎖할 수 있는 對內態勢의 정비 等-을 摸索하는 것 等を 考慮할 수 있다. 最近 「키신저」 미국 國務長官의 韓半島 問題의 조용한 해결을 希望한 平和協定締結 示唆같은 것은 우리의 立場을 보다 補強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勢力은 北韓으로 하여금 本質的인 對話態勢에 勉하게 하고 그러므로써 그들의 기존 主張을 後退케 하여 우리측의 主張을 受諾케 하는 方向으로 유도케 할 것이며 南北間의 協商 構造는 종래의 戰略的 目標의

상기 段階에서 實利追求와 相互利益分野의 交流, 人道的 苦痛解消가 重要視되고 協商者의 姿質에 있어서 까지도 專門性이 重視되는 段階로 發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段階에서는 적어도 南北의 協商構造의 正常化가 이룩될 것이며 北韓 역시 必要에 의한 對話 公平의 原則이 適用되는 對話構造로 轉換케 될 것이다.

現 段階의 南北對話構造의 特性을 協商論理面에서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南北對話構造의 特性

韓 国		北 韓
不可避性 認識 (國際的, 統一理念的)	對話의 認識	目標達成(赤化)의 手段으로서 認識
合意狀況摸索	對話 狀況	三重選擇의 活用 (合意, 中斷, 持續)
一貫性維持	對話 方法	一貫性 欠如
段階的, 漸進的	對話 姿勞	攻勞的, 威脅的

나. 南北協商의 類型

前記한 南北對話 構造에서 言及하였던대로 北韓은 南北協商의 目標을 南韓社會의 政治的 安定을 교란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赤化革命의 야욕을 成就하려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方法面에서도 그들은 南北關係에서 對話의 方法을 선택 가장하면서도 對內的으로 金日成 獨裁體制를 強化하고 對外的으로는 北韓地位向上에 狂奔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北韓은 協商을 再分配 및 附隨 效果를 開發하여 革新協商 - 革新의 概念에는 南北의 差異가 있다 - 으로 發展시키려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反해 韓國은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나아가서 平和統一을 協商의 궁극적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關係에 있어서는 人道的 側面에서 南北赤十字會談과 非政治的 交流推進等を 推進키 위한 調節委員會 構成을 提議하였고, 對內的인 對話體制의 構築과 對外的인 對共產圈 門戶 開放政策을 推進시키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協商方向은 革新 및 부수效果 開發에 置重하여 南北關係를 正常化시키는 方向에서 推進되고 있다.

8.28 以前의 南北協商은 그 性格과 目標, 合意內容, 合意基準에 서서 그 類型을 概觀할 수 있다.

첫째 性格面에서 原則合意에 置重한 名分的 協商에 不過하였고 이것은 「이블렌」의 協商理論에서 볼때 革新 및 부수效果開發 類型으로 評價할 수 있다. 革新의 意味에 있어서 韓國은 기존의

南北關係의 敵對性에서 脫皮하여 平和定着을 向한 革新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共產主義的인 革命的 概念으로 把握한다.

둘째로 目標面에서 볼때 名分上으로 南北은 相反된 統一目標 追求하고 있으며 實質的으로는 各己의 体制安定에 置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째로 合意內容面에 있어서도 原則合意에 限定된 協商이 이루어졌고 特히 무과할 수 없는 것은 이 合意에 對한 事實上의 解析에 있어 南北이 差異가 있다는 点이다. 이것은 協商에 있어 「해석권 留保」의 立場보다는 궁극적으로 南北의 協商의 基本立場에 있어서의 差異. 즉 合意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을 指摘한다 하겠다.

네째로 合意基準에 있어서는 相互의 理念性 — 自由. 共產 — 을 重視하므로서 協商의 本來的 意味에서의 共同利益의 原則에서 벗어나고 있다.

以上の 內容에서 「이클레」의 協商理論을 導入해 볼때 8.28 宣言에 依해 北韓이 一方的으로 對話를 中斷하기 以前까지의 南北對話는 基本的으로 附隨效果 開發. 即 合意에 關心없이 效果만늘 노리는 協商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4 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釋成은 革新協商의 成果로 把握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南北協商의 性格을 協商理論上의 類型에 立脚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正常化類型的 性格

國家間의 協商理論에서 提起되는 正常化類型은 停戰이나 休戰을 通해 戰鬪를 中止시키거나 外交關係를 다시 樹立하거나, 軍事同盟의 締結로 一時的인 占領을 終熄하고 其他戰後의 不明確한 關係를 講和條約을 通해 正式化하는 것과 같이 非正常的인 關係를 終結짓거나 默示的으로 이루어진 合意를 公式化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正常化 類型的의 特性은 正常化 關係가 樹立되지 않을 경우에는 <非正常>事態는 처음에는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 自体가 갖는 不安定性때문에 새로운 變化가 단시일內에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 常例이다.

南北關係의 正常化는 일단 休戰協定에서 一段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이 休戰的 性格이 어느 정도 不安定한 關係를 基本的으로 갖고 있으므로 해서 南北에는 事實上의 緊張이 계속되어 온 것도 事實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平和定着의 立場에 서서 南北關係가 기존의 休戰協定 體制 즉 動亂體制에서 正常的인 狀況回復를 努力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것이 武力에 依하지 않고 平和的인 方法으로 非正常 關係를 解決하려는 立場에서 南北協商의 意味를 부여할 경우 正常化 類型的의 하나로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留意할 것은 南北이 생각하는 非正常的의 意味가 一致하지 않는다는 点이다. 韓民族의 統一, 獨立에 關한 正統性을

固守하는 韓國의 立場으로서는 北韓의 政治實體를 否認할 뿐 아니라 韓半島의 唯一合法性을 固守하므로써 「協商은 곧 統一에의 지름길」이며 同時에 「分斷의 非正常關係를 統一의 正常關係로 轉換키 위한 協商」으로서 理解할 수 밖에 없다. 反面에 北韓의 立場에서는 南北同格化를 위한 條約의 締結,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置, 南北調節委의 政府間 「레벨」로 擴大要求 等 北韓의 韓半島 對內, 對外 同格化를 再配分하려는 것으로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는 事實上 再配分類型으로서 또는 正常化類型으로서의 意味를 同次元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再分配 類型的 性格

再分配를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그 特徵이 攻勢側이 守勢側에 물려있는 側을 相對로 不利한 讓步를 強要하는 데 있다. 이것은 領土, 政治的 影響力, 制度的인 權能과 權限, 經濟的 및 軍事的 資產등을 새롭게 配分하므로써 現狀을 變更시키려는 要求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協商에서는 攻勢側에 得이 있으면 守勢側에 損失이 있게 마련이며, 攻勢側은 自己의 要求가 拒否되면 한층 더 不利한 結果를 招來하겠다고 威脅함으로써 그 要求를 관철시키게 된다. 더욱이 이 協商의 가장 극단적인 形態로는 攻勢側이 核心的 要求를 交渉을 위한 補助的 争点으로 남긴 가운데 最後通牒의 形式으로 提起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攻勢側의 威脅은 高度로 具體性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威脅은 만일 要求가 充足되지 않을 경우 指定된 期日에 現實化 될 것임을 宣言하고 있는 것이다.

再分配 協商에서 가장 留意할 點은 攻勢側이 成功하거나 失敗하는 경우의 具體的 狀況이다.

만일 攻勢側이 成功하면 이러한 類型의 協商에 있어서의 合意는 守勢側이 要求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現狀維持의 變化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反面에 만일 攻勢側이 成功하지 못한다면 이 協商에서의 合意는 攻勢側이 그들의 要求를 撤回하는 代價로 守勢側으로 부터 某種의 體面維持의 公式를 양해받는 方向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南北協商의 경우 이 再分配類型으로서 把握할 수 있다. 北韓은 爭突上 韓半島의 北쪽을 현실적으로 支配하고 있는 政治實體로서 韓半島의 南쪽만을 支配하면서 韓半島 全體의 唯一合法性을 갖고 있는 韓國에 對하여 攻勢的 立場을 取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協商의 攻勢側은 北韓이며 守勢側은 韓國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北韓의 協商姿勢는 多分히 前記한 再分配 類型的 特性을 그대로 試圖해 온 것으로도 評價할 수 있다.

8.28 聲明의 例는 그들의 再分配類型의 戰術을 活用한 것으로 把握할 수도 있으며, 소위 그들의 韓半島 唯一合法性 配分要求는 적어도 南北協商의 枠에서 重視되지 않을 수 없는 主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3章에서도 言及한 대로 南北間의 協商이 共同利益 追求보다는 相衡하는 利害가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만큼, 또 이러한 利害의 衝突도 攻勞側의 一方的 行爲나 要求에서 出發한다는 點을 감안할때 우리의 對北協商 姿勢는 再分配的인 性格에 기반한 戰術的 對策으로 武裝할 必要가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끝으로 再分配 協商의 性格으로 南北協商을 把握할 경우 暴力的인 方法이 最後의 手段으로 潛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協商類型은 共同利益을 目標로 하는 革新協商類型으로 轉換하기가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의 南北間에 中立的 交流-機構가 設置된다해도 이것이 制度的으로 南北 어느 一方에 편견을 갖게 될 경우 再分配 協商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3) 革新協商類型的 性格

革新協商에 있어서는 協商의 主題가 共同利益이고 相衡하는 理解는 細部問題로 회피된다. 南北間의 協商의 바람직한 方向은 바로 이 革新協商의 次元에서이며 우리 政府의 對話姿勢 역시 이러한 方向에서 理解된다. 革新協商에서는 威脅이 行使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것은 再分配 協商에서 攻勞側이 언제나 威脅을 내세우거나 아무리 적어도 強力한 경고들 수반한다는 것과는 差異가 있다.

革新協商을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새로운 制度를 創設하거나 目的物과 地域을 統制하기 위한 새로운 協定을 가지므로서 協商 당사자間의 새로운 關係나 義務를 設定하는 問題를 취급한다. 이 協商의 結果로 나타나는 變化는 協商當事者들에 반드시 均等한 利益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利롭게 한다는 點에서 特性이 있다.

南北協商 過程에서도 몇가지의 例를 發見할 수 있다. 즉 軍事 衝突防止를 위한 直通電話 架設合意나 비록 해석에는 차이가 있으나 7.4 共同聲明內容상의 機構創設 問題, 交流에 對한 原則合意等 이 이에 屬할 수 있다.

勿論, 南北協商의 方向은 현재의 戰略的 對峙關係만이 영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변상황변화 - 例를 들면 強大國間의 한반도 保障조약 체결, UN 南北同時加入等 - 에 따라 南北協商은 武力方法이 適用되지 않는 條件下에서 革新協商的 類型으로 轉換할 수 밖에 없다.

革新協商이 當事者間의 새로운 關係 또는 새로운 企圖를 創設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이상 앞으로의 南北對話에 있어서 交流機構의 創設 내지 調節委機構의 正常化에 對한 우리측의 準備가 要請된다고 하겠다.

(4) 附隨效果開發類型으로서의 性格

지금까지의 南北協商은 附隨效果 開發類型에 속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一般的으로 附隨效果開發 類型은 合意에 關係없이 宣傳이나, 情報生産 또는 協商에 參加하지 않는 第3者의 政治的 態度的 修正等を 目的으로 하는 協商이다.

南北間의 協商이 附隨效果 開發類型으로서 지니는 性格은 基本的으로 이 類型은 合意가 도저히 不可能하나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協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點에서 考察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附隨效果 開發을 위한 協商의 경우에 다음 몇가지의 部分類型으로 分類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一般的인 附隨效果 類型을 說明하면서, 部分的으로 南北關係를 指摘하도록 하고 보다 세부적 具體的 南北協商에서 나타난 事例는 다음 章에서 北韓의 敎術을 說明하면서 다루기로 한다.

(가) 接觸維持

附隨效果 開發의 첫째 類型으로는 接觸의 維持이다.

接觸維持만을 目的으로 한 協商의 代表的 事例는 1962年7月12日 「던·리스크」美國務長官이 「베르린」協商에 關한 記者들의 質問答 弁要旨에 잘 나타나고 있다.

• 이 問題를 놓고 接觸을 維持하는 것이 비록 만족한 解決策이 나올 展望이 밝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까지는 重要하다는 것을 雙方이 아직 믿고 있다. •

또 「윌트·리프만」의 「컬럼」에서 接觸維持에 對한 좋은 示唆
를 얻을 수 있다.

· 아무런 合意點이 보이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會談을 계속
進行하는 가장 큰 理由는 緊密한 接觸을 維持하므로서
美·蘇는 危險한 「베르린」事態가 捻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事前에 防止할 수 있는 것이며 ……」

接觸維持를 目的으로한 協商이 왜 바람직한가에는 두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 對話나 協商은 表面上의 主題 以上으로 特定한 다른 問題
에 있어서 對話의 広場을 만들어 준다는 데 있다.

둘째로는 協商代表들이 만난다는 것은 긴급한 의사소통과 위기해
결의 通道를 위한 잠재적 通路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對話의 広場을 마련한다는 것은 雙方이 다른 主題를 놓고 意見交
換을 하기 위해 어떤 具體的 協商에 들어갈 구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잠재적인 「코뮤니케이션」 通路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것은 東·西協商의 名分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성급한 行動을 하는 어느 一方이 接觸이 없을 경우에는
敵對的 行動을 할 수 있다고 假定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形態는 이러한 接觸維持가 永久化 내지 一種의 制度化
하는 조치일 수 있다. 즉 「워싱턴」과 「크레믈린」간의

「 핫-라인 」이 그 代表的인 例다. 南北間의 協商 역시 이러한 次元에서 說明된다. 즉 南北이 本質的으로 相互合意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서도 南北協商이 계속되는 것은 接觸維持 그 自体가 目的일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다른 諸般問題와 달리 南北間의 接觸維持는 (비록 그것이 一時的인 中斷 내지 決裂의 威脅은 있다 하더라도) 南北 双方에 여러 가지 側面에 有利하다고 判斷될 수 있는 素地 등이 있다.

北韓의 경우나 韓國의 경우 이러한 接觸유지는 주변 強大國의 韓半島 緊張緩和에 對한 現實的 措置로 評價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國際的인 干涉을 일단은 무마시킬 수 있는 조치일 수 있다. 勿論, 보다 實利的 次元에서 接觸維持의 利點이 南北双方에 共히 存在한다는 것도 事實이다. 즉 北韓의 경우 金日成은 對內的 矛盾을 一時的으로 해소시켜 金日成體制를 보다 強化할 수도 있고, 韓國의 경우는 國民의 統一念願에 政策의 比重을 強調하므로써 內部的인 問題를 建設的 次元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發見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暴力的 行動의 代替

西方陣營에서 상당히 共通的으로 되어 있는 見解에 의하면 協商過程은 相對方을 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相對方으로 하여금 協商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義務感에 얽어매므로써 相對方이 다른 경우에 使用할지도 모르는 모종의 暴力을

斷念시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休戰이나 기타 다른 正常化 協定の 경우에 있어서 協商의 一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함으로써 즉,

① 暴力使用은 相對方의 會談決裂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② 會談을 지속하는 것이 暴力使用을 通하여 利得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特히 오늘날 南北 協商에서 北韓의 立場은 後者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 會談이 進行中이라는 바로 이 事實로 因하여 暴力使用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南北 協商은 北韓에 依하여 前記한 ②항의 경우로 惡用되고 있을 素地가 크다. 왜냐하면 基本的으로 北韓은 對話의 方法으로 南韓内部의 革命力量을 強化하려는 데 있으므로 해서 적어도 韓國을 武力이나 暴力革命으로 赤化시킬 수 없는 한 이 方法이 最後의 代案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北韓이 對話의 方法으로 達成可能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南北内部의 革命力量의 強化라는 基本假定아래 ;

- ① 韓國政府의 孤立化 (韓美, 韓日間의 離間操作을 目標로 對話를 利用)
- ② 韓國政府와 國民間의 離間
- ③ 南韓住民들의 對北敵愾心, 反共價值 觀念 混亂誘導
- ④ 美軍의 撤収
- ⑤ 北韓內部矛盾의 해소
- ⑥ 南韓內의 反共體制의 解弛, 等이다.

이러한 協商에 關聯된 다른 하나의 無수효과는 前記한 暴力的 行動의 代替라는 意味와는 正反對로 協商이 暴力使用을 위장하는 方法으로도 使用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6.25 戰爭挑發 直前に 北韓이 主張했던 南北會談云云은 좋은 歷史的 經驗이 된다.

(가) 情報

協商過程은 相對方에 對한 情報를 얻기 위하여 使用되는 수도 있다. 때로는 特殊한 情報가 現안中인 爭點보다 더 重要性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多務的 會談에서 友邦間의 對立點을 해소하고 雙方의 共同關心事를 보다 무각시키는 협상에서 노리는 無수효과 이다.

南北協商의 경우 이 情報가 協商의 目標가 된 例는 크게 찾아 볼 수 가없다. 다만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는 가운데 雙方의 軍事的 情報探色이 可能할 수는 있었으나 이것은 다른 目的에 비추어 볼때 극히 사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展開될 南北協商에서는 이것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南北間의 對話, 協商에는 언제나 雙方의 戰略的 目標이 對峙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속임수

情報의 逆利用으로 看做될 수 있는 協商의 부수효과는 속임수다. 그러나 合意와 關係없이 協商의 부수효과로서의 속임수와 合意에서 유리한 條件을 얻는 기술로서 속임수는 區別해야 한다.

前者는 부수효과 開發協商의 한 유형이지만 後者는 協商의 妥結 過程에서 나타나는 戰術이기 때문이다.

부수효과로서 속임수의 한 例로서 相對方이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條件을 提議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合意를 拒否하는 것보다 좋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경우 이쪽에서 相對方의 더 좋은 條件을 提議해 오기를 원한다면 相對方의 처음 提議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協商을 결렬시키는 쪽을 택하므로써 상대방을 믿도록 속일 수 있다.

南北協商의 경우를 이러한 類型으로 설명하기는 不適切하다. 다만 協商妥結過程상의 戰術로서는 흔히 使用되어온 것만이 事實이다.

(마) 宣 伝

이 방법은 共產主義者들과 西方側間의 協商에서 共產側에 依해 흔히 使用되는 形態이다.

이것은 다음 章에서 說明할 北韓의 協商戰術에서 다룰 것이다.

5. 南北協商事例에서 본 北韓의 協商戰術

가. 基本戰術

(1) 協商對象의 擴大

北韓은 基本的으로 南韓革命力량의 基本階級을 勞動者, 農民에 두고 그 補助力量으로서 青年, 學生, 知識人, 民族資本家와 小資本家階層을 包括하고 있다.

그러나 71年8月 「시하누크」 歡迎演說에서 金日成은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하는 모든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外形上 그들은 協商對象을 執政黨에 까지 擴大할 意圖임을 밝혔다. 그러나 北韓이 協商對象으로서 執政黨인 民主共和黨까지를 包含시키고 있는 것은 決코 革命의 打擊對象으로 基本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地主, 売弁資本家, 反動官僚까지 接受한다는 意味는 아니었다.

換言하면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共和黨이 차지하는 階層은 그 下部構造로 보아 그들이 主張하는 이른바 革命力量階層을 廣範히 包括하고 있기 때문에 上層構造의 打擊對象보다 廣範한 底邊을 形成하고 있는 革命力量階層을 意味한 것이었다.

또한 南·北韓赤十字予備會談이 進行되어온 72年 1月 日本 說 売新聞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韓間의 接觸과 連繫를 強化하며 統一問題를 풀기 위해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할것을 主張한다고 前提하고 「民主共和黨, 新民黨, 國民黨을 비롯한 모든 政黨들과 아무때나 合意하는 任意的 場所에서 會談할 用意」가 있

다고 했다.

이러한 立場을 取하게 된 理由로서 金日成은 平和的으로 統一 問題를 풀자면 여러 가지 政黨들 사이에 祖國統一에 관한 政見들을 交換하고 合理的인 方途를 摸索하기 위해서 双務的인 또는 多務的인 協商들을 活潑히 進行해야 하기때문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北韓의 이러한 立場은 客觀的으로 두가지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全体民族의 運命을 決定하는 問題이니 만큼 여러 階層의 意思와 立場이 統一을 實現하는 具體的 方途에 反映되도록 해야 한다는 두個 体制의 對峙狀況에서 北의 一糸不亂한 「프로레타리아」獨裁黨과 南의 各其 利害를 달리하는 政黨들과의 多務的 接觸 또는 双務的 接觸을 實現한다는 關係設定이다.

多數意思의 反映이란 첫번째 觀點은 統一促進過程을 單純化시켜 볼때 아주 抽象的이면서 普遍性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論題의 名分이 뚜렷하다.

그러나 實質的인 移行過程에서 組織化되지 못한 萬人의 意思가 그대로 反映될 수 있다는 點에서 多少間의 非現實性이 內包되어 있다. 이런 點에서 多數의 意思를 反映시켜야 한다는 立場도 名分 爲主의 戰術的 口號로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다음 南·北間의 二個의 体制 卽 그 어느쪽도 모든 階層이 하나의 体制에 利害關係가 密着되어 있다는 假定下에서 보면 이른바 多務的 接觸이나 協商이란 無意味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獨裁黨으로서 全社會를 組織化하고 있는

北韓과 多数政派의 利害와 對峙되어 있는 狀態下의 韓國이 政治的 協商을 展開함에 있어서 多務的, 双務的 協商의 意義는 相當이 커진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南韓의 革命鬭爭과 北韓의 支援이라는 相關關係에서 볼 때 双務的, 多務的 協商戰略의 意味는 매우 重要하다.

即 北韓은 南韓의 革命은 南韓人民自身の 課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67年 以後 南韓地域에는 「맑스·레닌」主義를 綱領으로 내세운 統一革命黨이 活動하고 있는 것으로 偽裝되고 있다.

61年 9月 北韓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提示한 對南革命課業中の 하나가 南韓內에 「맑스·레닌」主義를 具現하기 위해 鬭爭하는 地下黨 組織工作이며 이 地下黨組織이 合法的인 政治活動을 展開함으로써 이른바 南韓革命의 主導勢力으로 役割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双務的, 多務的 接觸과 協商을 進行시킨다는 觀點은 곧 韓國內 合法, 非合法的인 共產化 組織이 南·北 政治協商過程에서 南韓側의 權利에 끼어 發言權을 行使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展望하게 된다.

따라서 南·北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가 同時的으로 參加하는 南·北政治協商의 展開는 곧 韓國政治體制가 容納하는 最少階層 即 執權黨으로 부터 모든 合法的 政黨 및 社會組織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非合法的 組織이나 이를 빙자한 北韓主導下의 偽裝組織에 까지 擴大될 것이며 심지어는 個別的 人士라는 縮小된 範圍까지 파고 들 수 있는 可能的 案地를 마련한다는데 그 核心이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이 段階論에 立脚하고 있는 韓國의 立場에

對抗하여 包括的이며 一括的인 問題解決의 立場을 取하고 있음은 協商戰略이 곧 韓半島 産化에 服從하는 範圍에서 設定되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해주고 있다.

1972年 9月 日本 毎日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의 高位級會談을 進行시키는 過程에서 다시 그 對象範圍을 擴大해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即 南·北調節委員會를 하루 빨리 構成 運營하려고 한다는 立場을 提示하면서 그러나 統一問題는 「南·北赤十字 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으로는 볼 수 없는 問題들이 있다」고 말하나 「根本的 問題들을 解決하려면 더욱 幅 넓고 多方面的인 接觸과 協商을 實現하여 오랜 期間에 걸쳐 쌓인 南·北間의 不信任과 誤解를 풀고 理解를 增進시키며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一連의 具體的 方策들을 討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立場에서 부터 出発하여 「南·北 朝鮮 諸政黨, 社會 團體들의 連席會議」나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 南韓의 「國會議員」들간의 聯合會議같은 政治協商을 時急히 進行할 것을 主張한다고 했다.

이처럼 北韓은 그들의 協商戰略展開에 있어서 革命의 打擊對象과 革命力量을 分別하고 이를 基本的인 立場으로 明白히 規定하고 있으면서 表面上의 打倒口號로 부터 打擊對象의 內部 克服이라는 觀點으로 轉換하고 協商對象의 幅을 넓히며 그 底辺을 파고 들어 가는 戰略的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리고 協商 對象의 包容手段으로서 南·北間의 接觸을 계속 擴

大하는 方向에 로 問題를 誘導하고 있다.

即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라는 人道主義的 接觸에서 부터 高位級 政治會談에 까지 對話의 通路가 開設되고 있는 現實에 더하여 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로 부터 南北 立法機關의 聯合會議 그리고 個別的 接觸에 이르기 까지 多様な 接近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態度는 南·北間의 對話를 通하여 統一問題에 이르는 広範한 問題들을 討議實現하는 것 보다 오히려 共產革命을 促進시키는 背景與件의 造成이라는 側面에 協商의 戰略的 價値를 賦與하고 있기 때문이다.

(2) 協商條件의 設定

協商對象의 擴大는 곧 共產革命을 促進시키는 背景與件造成에 그 戰略的 價値를 賦與하는 것으로 拂이된다.

바로 이러한 與件의 造成은 革命對象地域의 南韓地域을 意識하고 그 政治構造를 소위 共產化 革命에 有利하게 改造 또는 變質시키는데 따라 決定된다.

北韓의 統一政策은 「美帝國主義 侵略政策」에 對抗하는 「反帝·民族解放鬪爭」의 性格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따라서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對南革命實施의 基本條件은 韓國으로 부터 美軍을 撤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美軍의 撤退를 위한 鬪爭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重要한 一部分으로도 되고 있다.

따라서北韓은 國際的인 反美隊列에 能動的으로 參與하면서 南韓 國民自身の 鬭爭에 따라 駐韓美軍의 不可避한 撤収狀況을 展望하고 있다.

이러한 展望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는 南韓內 政治體制를 改造하고 非合法的인 政治組織을 合法化시키도록 全力量을 傾注하는 것이다.

더우기北韓이 韓半島 全域에 共產主義體制를 移植하기 위해서 強力한 反共體制를 瓦解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로 提起된다.

따라서北韓은 南·北의 對話 即 南北協商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韓國의 政治體制를 變質시키며 이른바 對南革命可能한 條件造成에 有用한 條件을 設定하고 있다.

即 첫째로 美軍撤収를 비롯하여 韓國의 安保와 密接히 結付되고 있는 國際的 連繫의 斷絶이다.

71年 4月北韓의 8個項 統一方案에서 美軍의 撤収와 韓·日 條約과 韓美條約의 廢棄 또는 無効化를 要求한 것이나 UN과의 法關係를 白紙化시키자는 그들의 企圖는 모두 이러한 協商條件의 先次的 意味를 나타내 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立場은 韓國統一問題는 民族內部問題로서 外勢干涉을 基本的으로 排除해야 한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北韓은 南·北 對話를 進行시키는 過程에서 多樣한 方法으로 條件을 規制하는 提議를 내놓았다.

그들의 主張에 依하며 韓國은 美帝國主義者들의 強行을 合理化하며 美帝國主義者들과 軍事同盟關係를 維持發展시키려 努力함으로써

「7.4 共同声明」에서 合意한 自主的 原則을 違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軍國主義는 再生되고 있으며 특히 大東亞共榮圈의 옛 妄想에 사로잡혀 海外膨脹을 위해 출달을 치고 있다고 主張한다.

이와 關聯하여 73.4 北韓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金一은 「7.4 共同声明」의 3大原則中의 하나가 外勢依存이나 外勢干涉없이 自主的 統一을 實現하는 것이며 이는 美軍을 撤収시키며 其他 外部的 勢力의 干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美國은 南·北對話가 始作된 첫날부터 對話를 妨害하며 「닉슨」主義에 따라 「朝鮮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方法」을 利用하면서 好戰分子들을 煽動하고 있다고 前提하면서 万若 美軍이 나가면 北韓의 軍隊를 自進해서 20万以下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北韓의 發議는 韓國의 安保와 直結되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背後支援勢力을 遮斷하므로서 事實上 韓國内部에서의 共產化 革命을 促進하는 基本條件을 마련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相互 信賴와 理解를 돕기 위한 분위기造成이 重要하며 이는 軍事力의 大幅減縮과 그 狀態下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자는 것이다.

72年 1月 南·北間에 人道主義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동안 北韓은 現行停戰協定을 南北間의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問題를 提起한 以來 南·北間 平和協定締結內容을 다음과

같이 提起했다 .

① 南·北의 武力增強과 軍事競爭을 中止

② 美軍을 包含한 모든 外國軍隊의 撤収

③ 南·北軍隊를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

④ 南·北軍備의 大幅減少

⑤ 外國으로 부터의 一切의 武器 作成裝備·軍需物資 搬入中止

또한 73年 6月 「체코」의 「구스타브후사크」를 歡迎하는 金日成의 演說에서 南·北間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지는 것은 民族大團結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南·北關係를 改善하며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가장 懇切하고 關鍵的인 問題라고 指摘하였다 .

勿論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함으로써 外形上 平和的 분위기 造成하에 南·北의 平和的 協力を 發展시키는 契機中 하나의 要件은 된다 . 그러나 平和協定의 實効性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協定에 規制된 內容에 있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平和的 統一을 實現할 立場에 놓여 있는가가 基本的인 核心이 된다 .

北韓의 主張대로 南韓革命은 南韓人民 自身の 力量에 依하여 推進되는 것이고 또 南韓內에는 暴力에 依한 主權奪取를 當面目標로 내세우고 있는 「맑스·레닌」主義黨과 統一革命黨이 存在한다면 南北平和協定에 따른 南·北間 軍備縮小는 곧 北韓과의 關係에서 均衡이 維持될지 모르나 統一革命黨의 偽裝과 共產革命組織을 同時에 相對로 한 均衡이라고 볼수는 없다 .

이런 點에서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軍事的 對峙狀態를 止揚하기

위한 南·北平和協定の 締結은 北韓의 協商條件의 하나이면서 바로 基産革命에 服從하는 北韓協商戰略의 條件이다.

세째로는 韓國政治体制의 變質追求이다.

北韓은 韓國이 對話를 進行시키면서도 안에서는 勝共, 對決, 實力培養 등 挑發的 口號를 提起하면서 戰爭準備에 服從시키며 10月 維新以後 社會를 恐怖분위기로 끌어 넣으며 平和指向的인 原子力量을 苛酷하고 北韓을 찬양하는 無數한 사람들을 檢拳, 投獄하며 소위 革命家 愛國者를 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南·北間의 對話가 眞實로 成功하기 위해서는 反共法과 國家保安法 등 共產主義와 接近하려는 行爲를 犯罪視하는 法律을 棄絶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政治活動을 自由롭게 할 수 있도록 保障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南과 北이 對話를 進行시킴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과 制限된 接觸에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広範하게 그리고 合法的으로 接近이 可能하도록 体制를 改善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協商自体가 互惠平等에 依한 「互相主義」 原則에 立脚한다면 北韓의 境遇에 있어서는 同一하게 適用되어야 한다.

即 「프로레타리아」 獨裁体制는 變質되어야 하며 따라서 各異한 政派가 다른 이 自派의 政綱, 政策을 내걸고 政治에 參與할 수 있도록 北韓의 憲法이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北韓은 그들 自身の 体制上의 問題를 一切 學論함이 없이 韓國内部事情의 變化만을 促求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協商對象의 擴大에 따른 共產革命勢力의 広範한 引入와 이들의 合法的 政治活動을 容納하는 그러한 社会体制가 아닌 한 協商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提言하면北韓은 協商을 通하여 共產革命을 可能케 하는 素地를 마련해야 한다는 現實的 慾求에 執着하고 있으며 이러한 協商條件의 規定에 南·北協商의 限界點을 提示해 주고 있다.

以上北韓의 協商條件은 韓國의 安保体制를 瓦解하고 南韓内에서 自由로운 共產革命活動을 展開할 수 있도록 條件을 設定하는데 核心이 있으며 따라서 對話의 近密과 無關하게 革命推進을 위한 手段으로서 協商戰略을 驅使하고 있다.

따라서 協商條件의 設定과 이의 意欲은 共產革命을 進行하는데 重要な 戰略的 役割을 하고 있다.

(3) 協商內容의 飛躍

北韓은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平和的 方法 即 南·北間의 協商을 通해 統一問題를 解決하도록 要求해 왔고 따라서 各異한 協商內容을 그때마다 提起해 왔다.

그러나 南·北對話以後 北韓이 展開하고 있는 協商展開方向은 낮은 次元으로 부터 높은 次元에로의 漸進的 擴大라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換言하면 北韓은 協商의 對象에 있어서 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等 그 會談性格自体가 政治的 次元에로 옮겨짐에 따라 南·北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 또는 個別的 人士에게 까지 그 門戶를 開放해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討論 主題에 있어서도 그 主題內容을 漸次的으로 飛躍시키고 있다.

72年 1月 「讀売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美軍을 撤去시킨 條件下 南北間의 接觸과 連繫를 強化하고 統一問題를 풀기 위해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單純한 人道主義的 問題의 解決만으로는 그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다는 시사를 주었다.

그리고 同年 7月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南·北間의 高位級 政治會談이 開催될 展望을 열어 놓은 時點에 이르러 南·北調節委員會를 하루 빨리 構成할 것을 促求하면서도 「統一問題는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같은 制限된 範圍의 接觸과 協商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다」고 말하고 多方面的 接觸과 協商을 提起했다. (72年 9月 12日 每日新聞 記者와 金日成會見)

이처럼 協商의 幅을 넓히면서 73年 2月 7日 「2.8節」 記念行事에서 한 吳振宇의 報告에서는 南·北會談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했다.

即 南·北會談은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爲하여 民族大團結의 原則아래 多方面的인 合作이 實現되어야 하며 그 具體的 方案으로서 現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므로서 平和的 統一氣運을 더욱 發揚하며 政治, 經濟, 文化, 軍事, 外交等 諸分野에서의 合作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韓國維新憲法採擇 以後 韓國에 造成된 情勢가 이른바 對話를 통한 南韓에서의 革命與件造成勢力에 흐린 展望을 보여주고 있고 또 美·中共의 接近과 美·蘇關係는 곧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北韓에 對하여 새로운 局面을 열어놓고 있다는 狀況評價에 基礎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의 亞細亞政策에 對應하는 中共 또는 蘇聯의 相衡된 立場과 그것이 北韓의 對話政策에 對한 相異한 見解를 誘發하고 있다는 狀況下에서 北韓은 解氷되어 가는 南·北關係發展에 새로운 緊張을 던져 주었다.

即 吳振宇는 그의 報告에서 「韓國이 繼續 武力을 增強하고 戰爭準備를 強化한다면 應分の 對應措置」를 取하게 될 것이며 「끝 끝내 階級戰爭을 強要한다면 그것을 傍觀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北韓은 階級鬭爭不辭라는 強硬한 姿勢로 부터 多方面的 交流라는 穩健한 對話推進努力에 이르는 極과 極을 내달으며 多樣한 方便을 驅使하고 있다.

73年 4月 北韓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金一은 美軍撤收를 비롯한 其他 外部努力의 干涉을 排除하며 情勢를 尖銳化하는

言行을 삼가할 것과 制度를 相對方에 強要치 말아야 하며 社会民主化와 各界各派 그리고 全体 人士의 政治活動의 自由를 保障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政治·經濟·軍事·文化·外交등 多方面的인 合作을 提起하였다.

經濟分野에 있어서

- ①北韓地域에 充分히 埋藏된 地下資源의 共同開發
- ②漁物의 開放
- ③共同漁場
- ④南韓의 灌溉工事共同推進등 經濟的 可能性을 民族經濟의 自立的 發展을 위해 統一的으로 利用하는 問題

科學·文化分野에 있어서

- ①民族語의 統一研究
- ②歷史의 共同研究
- ③固有한 民族的 風貌를 빛내는 問題
- ④藝術 體育團의 交換
- ⑤單一한 民族藝術團, 單一한 體育團을 構成하여 共同進出하는 問題

軍事分野에 있어서 外勢侵略을 막는데 對한 共同防衛問題 그리고 外交分野에 있어서 對外活動의 共同步調問題 등이다.

그러나 韓國側에서 段階論에 立脚한 經濟, 文化的 交流의 先次的 解決提議가 具體的으로 表面化되자 北韓은 協商內容의 焦點을 多方面的 交流에 앞서 緊張緩和를 實現하기 위한 軍事問題의 解決

優先을 내세우고 實質的 妥結을 忌避하기 始作한 것이다.

말하자면 國際情勢의 不確定要素와 革命推進의 障礙的 與件을 克服하는 方便은 곧 問題의 核心에 깊이 파고 들어가 하나씩 하나씩 協力の 바탕을 이룩하기 보다는 協商의 主題를 그때 그때 뒤바꾸므로서 弱極적으로 그 어느 하나도 實現시키지 않은채 諸 問題를 一旦 討議해야할 問題點으로 浮刻시켜 놓는데 根本的인 意圖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南·北對話의 進歩는 그것이 크고 작은 問題를 莫論하고 相互 合意하고 또 實行됨으로서 有益한 것이나 그것은 곧 革命의 必要條件이 되지 않을 境遇 決코 妥協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可能的 契機로서 役割할 뿐이다.

이러한 立場에 서있는 北韓은 韓國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 依하여 南·北狀況이 새로운 局面으로 發展하게 되자 南·北協商의 弱極的 目標를 表面化시켰다.

韓國에서 「6.23」宣言이 發表된지 10時間 뒤에 北韓을 訪問中인 「체코」共産黨 總秘書 「구스다보·후사크」를 歡迎하는 자리를 빌어 南·北對話의 基本問題가 提示됐다.

即, 첫째로 방대한 武力을 가지고 서로 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다는 現實은 곧 平和威脅의 要因이며 南·北間의 誤解와 不信의 그늘로 되고있기 때문에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시는 것이 懇切하고도 關鍵的인 問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①武力增強 軍備競爭 中止

② 모든 外國軍隊撤収

③ 軍隊, 軍備의 縮小

④ 武器搬入中止

⑤ 平和協定 締結등 諸問題가 處理되어야 한다.

둘째,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등 諸分野에 걸친 多方面的 合作·交流는 統一의 前提條件 마련에 重要한 意義를 가지며 이 러한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가 實現되어야 平和協定도 보다 円滑 하게 된다.

셋째, 對話는 北과 南의 當局者들 사이의 範圍에서 그칠 것 이 아니라 全民族 範圍에서 벌어져야 하며 따라서 北韓의 勞動者, 勤勞農民, 勤勞「인테리」, 青年學生, 兵士들과 南韓의 勞動者 農民·青年學生·知識人·軍人,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등 各界各層人 民들과 政黨·社會團體代表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해야 한다.

넷째, 高麗聯邦共和國의 樹立과 單一國號에 의한 UN의 加入을 實現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北韓의 提議는 그 狀況評価로 보아 單選·單政을 反對 하기 위하여 展開했던 48 連帶會議 召集當時와 同一視하고 있다.

6.23 金日成演說에서 나타난 具體的 方案들을 評価해 보면 平和協定の 締結은 곧 6.25 戰爭以後부터 北韓이 戰略的 口號로서 一貫하게 主張해 온 內容으로서 「停戰協定の 鞏固化」, 「平和保障을 위한 國際會議召集」 「武力不行使協定」, 「武力不行使宣言」등으로 表現되어 왔다. 이러한 平和保障方案은 其實 南·北當事者에 依

한 現實認定을 誘導하는 方便이었으며, 때문에 北韓은 北韓地域에 共產主義者들이 統治權力을 行使하고 있다는 現實을 認定해야 한다고 喚起시켜 왔다. 그리고 多方面的인 交流는 事實上「6.23」平和統一 外交宣言에서 明白히 提示하고 있음에도 北韓은 平和協定締結이 平和的 統一의 實現을 위한 關鍵問題로 못박고 오히려 副次的 意義로 格下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多方面的 合作이 實現됨으로서 平和協定도 보다 円滑히 된다는 點을 強調함으로써 平和協定締結과 多方面的 交流는 先後를 가릴 수 없는 必要的 條件으로 된다. 여기에서 北韓의 提議는 必要에 의해서만이 妥協한다고 하는 속셈이 들어나고 있다.

또한 「大民族會議召集」 問題는 바로 諸政黨·社會團體들의 政治 協商을 指稱하는 것이나 이 提議가 企圖하는 바는 南·北間의 信賴를 回復하는 段階的 努力에 앞서서 韓半島狀況을 그들에게 有利하도록 轉換할 수 있도록 民族的인 統一戰線形成에 主眼點이 있다. 이러한 着想은 곧 「48南·北聯席會議」가 南·北政治指導者들의 統合的 組織으로서 具體的 統一方途를 提示하기에 앞서서 可能的 地域에서의 總選反對運動의 名分으로 活用된 史實에 비추어 評價해야 한다. 換言하면 南·北總選을 拒否하고 그 代案으로 提起된 南韓에서의 單選單政反對에 先次的 鬪爭目標을 設定한 것은 共產體制移植에 障礙가 되는 總選契機는 煞殺하며 오직 共產化 革命의 有利한 條件이 造成되도록 狀況을 展開한데 있었다는 點을 想起할 수 있다.

이와 함께 聯邦制의 提案은 그것이 새로운 着想이 아니지만 「6
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서 提示한 U N 同時加入論에 對抗하는 要件
으로 設定된 것이다.

金日成은 同演說에서 南·北이 各其 U N에 加入하는 것은 現狀
을 固定시키고 分斷을 永久化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嚴密한 意味에서 分斷 28年동안 北韓의 對外的 活動이나 對南
提議에서 現狀을 認定하는 態度를 明白히 해왔다.

韓國의 「할슈타인」原則에 立脚한 外交的 牽制에도 不拘하고 北
韓은 國際적으로 同時承認을 獲得하기 위한 努力을 傾注해 왔고
이러한 立場은 國際機構에 의 加入이나 南·北間의 協定締結提議에
이르기까지 広範하게 具現되어 왔다.

이 問題에 관하여 北韓은 平等互惠의 原則에서 國家關係를 發展
시키고 있으나 이것을 두개의 韓國 造作에 利用하는 것을 反對한
다는 立場을 取함으로서 가볍게 넘기고 있다. 万若 이러한 論理
가 成立된다면 現時点에서 U N에 南·北이 同時에 加入하는 問題
를 반드시 分斷을 永久化하여 統一을 拒否하는 側面에서 理解하기
어려워 진다.

이러한 点에서 볼때 北韓은 共產革命에 有利한 條件이 成熟되기
까지 不斷히 協商主題를 飛躍시킴으로서 多様な 問題들을 提起해
놓고 그것을 革命可能한 要件으로 發展시켜 나가려는 基本的 原則
에 서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해 준다.

나. 會談戰術

一般的으로 協商의 妥結過程은 크게 提案段階, 論爭段階, 合意段階의 3段階로 分類된다. 會談戰術에 關한 理論的인 研究는 이미 2章에서 言及한 바 있고 北韓이 協商에서 展開하는 基本戰術에 關해서는 本章 앞부분에서 說明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北韓의 協商事例에서 나타난 主要한 戰術을 具體的으로 說明하겠다.

會談의 全過程을 通해서 北韓이 지금까지 展開해온 主要戰術을 大體로 3段階로 区分하여 說明할 수 있다.

첫째로 提案段階에서의 機先掌握을 目的으로 하는 先提案戰術을 들 수 있고,

둘째로 論爭段階에서는 政治會談 誘導 및 會談의 幅을 擴大하려는 意圖에서 驅使되는 「잇슈」의 操作戰術을 들 수 있으며,

셋째로 合意誘導 段階에서 原則을 合意하기 위한 양보 對 양보 戰術과 具體的 合意를 爲한 要求條件 倍加戰術을 들 수 있다.

(1) 提案戰術

北韓은 協商에서 機先을 掌握할 目的에서 先提議 戰術을 주로 驅使하여 왔다.

協商에서 機先을 掌握한다 함은 그들이 主張하는 場所와 時期에 會談을 開催하며, 討議內容도 먼저 提議하거나 또는 우리側 提議를 묵살하여 그들이 主張하는 「잇슈」를 討議토록 誘導함을 말한다.

同時에 北韓이 有利한 경우에는 積極的이며, 反面에 不利한 경우에는 後退를 通하여 會談의 機先掌握에 注力한다.

北韓이 提案段階에서 機先을 掌握하였던 事例로는 休戰會談과 赤十字 會談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休戰會談에서 北韓은 場所, 日時, 議題에 關한 機先을 掌握하였다. 場所에서는 「유엔」側이 元산항의 「켄마크」 病院船上을 提議한 데 反하여 北韓이 主張한 개성에서 開催토록 되었고, 日時 역시 北韓이 提案한 日시에 開催하였다.

당시 休戰會談에서의 議題設定에 있어서도 「유엔」側이 節次問題를 우선 討議할 것을 主張하였으나 北韓은 自己側이 提議한 議題를 基礎로 討議할 것을 主張하여 北韓의 主張이 貫徹되었었다.

이같이 北韓이 機先을 掌握한 事例는 最近의 赤十字會談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赤十字會談이 最初로 提起되었을 당시 北韓 赤十字側은 韓赤側이 「제네바」나 第3國에서 協商할 것을 提議한 반면에 判문점을 主張하여 결국은 判문점으로 낙착되었었다.

日시에 있어서도 韓赤側이 提案한 9.23日보다 그들의 主張대로 9.20日에 開催되었고 議題 역시 韓赤側은 第6次 會談時에 議題를 提議하였으나 北赤側은 第1次 會談時 先提議하여 機先을 掌握하였다.

北韓이 提案段階에서 驅使하는 주요 戰術中 先提議 戰術 以外에도 警戒해야 할 點이 있다.

이러한 警戒事項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단순한 宣傳的 効果의 파급을 위한 속임수 提案戰術

② 議題와 關係없이 要求를 내세우는 強奪的 提案(이러한 例로는 最近 調節委 會談에서 볼 수 있는 代表者 交替戰術이 代表的이다.)

③ 最終段階에서 合意나 決裂이나를 판가름하는 要求를 提起하여 不利한 立場에서 我側이 合意를 先行케 하는 끝맺음 戰術(아직 北韓이 이러한 戰術을 驅使하였는지 여부는 모르나 公開된 事項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2) 論爭戰術

北韓은 論爭의 段階에서 가장 많은 努力을 기울인다.

이는 그들이 부수효과를 가장 적절히 開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前記한 대로 論爭段階에서 北韓이 提起하는 戰術로는 會談의 幅을 擴大하고 政治會談으로 誘導하려는 데 그들의 目標을 둔다.

따라서 엉뚱한 提案이 論爭段階에서 提案되는가 하면 反復的인 선동이 계속되고 論爭의 對象이 操作된다.

그들은 이 段階에서 政治問題를 「잇슈」로 設定 提案하기가 일수이거나 또는 提案說明을 加하므로써 協商의 争点을 政治問題化시킨다.

休戰會談 당시 北韓은 論爭段階에서 外國軍 撤収問題를 提起下的 議題를 政治問題化시키고 中立國 監視委員團에 소련을 包含시키자는 것과 中共의 UN에서의 代表權 行使問題를 새롭게 提案하여 政治

的 性格으로 會談을 誘導해 나갔다.

赤十字 會談에서도 議題에 關한 論爭에서 事業對象에 親友問題를 包含시키자는 主張과 事業內容에 있어서 往來問題를 設定하고 尋人 事業을 無視하므로써 政治的 問題를 「잇슈」로 提示하였다.

그리고 共同報道的 高집이나 關係機關間的 身辺保障要求, 政黨, 社會團體의 參與 統一問題 우선 等の 問題를 提起하여 論爭 「잇슈」를 操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北韓과의 協商에 있어 論爭段階에서의 「잇슈」 操作에 對處하기 爲해서는 「잇슈」의 效率的 處理方法을 選擇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處理方法으로서는 一括處理方法, 段階的 處理方法이 可能하다. 즉 모든 「잇슈」를 同時에 提起하거나 特別한 「잇슈」만을 부각시키는 方法이다.

그러나 이러한 戰術이 北韓의 政治會談 誘導 및 「잇슈」 操作 戰術을 根本적으로 崩쇄할 수는 없다. 보다 本質的인 것은 協商 狀況에 對한 自由로운 代案選擇이 可能할 수 있을 경우에 비로소 北韓의 戰術을 능가하고 극복하여 우리의 目的達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協商의 狀況選擇 즉 三重狀況이 自由로울 경우 北韓이 使用하는 諸般戰術을 我側이 逆利用할 수 있는 餘地도 많다.

이 以外 北韓이 論爭段階에 흔히 使用하는 主要戰術中 우리가 警戒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宣傳效果開發 (우리側이 履行 不可能한 案을 提示하여 會談의 積極的인 姿勢를 誇示한다. 赤十字會談의 事例에서 그들은 친우의 자유로운 往來를 主張하였던 것이나 本 會談을 早期 開催하는 不可能한 提案을 해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積極的인 姿勢를 誇示하려 하였다)

② 「이미지」 投射戰術 (會談을 公開하므로써 對內外에 그들의 平和愛好國으로서의 「이미지」를 注入시키고 또 論爭에서 平和的인 攻勢를 위장하여 統一問題에 對한 主導權 掌握내지 北韓의 武力性 暴力性을 偽裝)

③ 輿論操作戰術 (會談日時나 場所를 有利하게 포착하거나 또는 선거기를 活用하므로써 輿論操作을 試圖한다.

一例로서 71.4.12日 北韓 外相 許淡은 大統領 選舉戰後로 하여 “人民의 政權이 서거나 愛國的인 새사람이 執權하면 平和統一에 應한다”는 發言을 하였다.

(3) 合意戰術

北韓이 協商過程에서 使用하는 合意戰術은 原則合意의 경우와 具體的 合意의 경우를 区分하여 把握할 수 있다.

赤十字會談의 事例中 그들은 여러번의 原則合意를 거론했으나 基本的으로 解釈上에 유보권을 쥐고져 한다.

本 會談日時에 있어 이루어진 合意內容中 “따르면 따를수록 좋다”는 式의 合意가 高작이다.

그리고 일단 合意된 事項에 對하여서도 修正案의 形式으로 必要

에 따라 얼마든지 바꾼다.

7.4 共同聲明에 關한 合意 역시 多意的 合意이다.

이와 反面에 具體的 合意에 關해서는 要求條件을 倍加시키는 戰術을 驅使한다.

그러나 지금껏 南北協商에서 이루어진 合意로는 南北間의 直通전화가설이나 調節委 설치 問題等 部分的인 것에 不過하다.

따라서 비록 南北間에 이루어 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具體的인 諸般合意는 그들의 強奪的 處理戰術이나 끝맺음 戰術等을 경제할 必要가 提起된다.

南北協商에서 合意는 北韓이 그들의 最終目標와 一致될 경우에만 可能하다.

따라서 비록 이루어진 여하한 合意라도 그들의 目標에 付合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더라도 合意를 반복시킬 可能性을 갖고 있다는 點을 明記할 必要가 있다.

